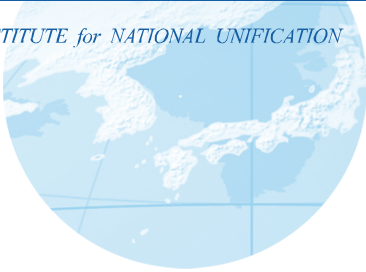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3호 (2013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3호 (2013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5 May 2013

① 주차_5.01-5.05	1. 대내 동향 6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3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② 주차_5.06-5.12	1. 대내 동향 18 가. 정치 나. 군사 다. 경제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2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29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③ 주차_5.13-5.19	1. 대내 동향 36 가. 정치 나. 군사 다. 경제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4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4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④ 주차_5.20-5.26	1. 대내 동향 5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5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64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⑤ 주차_5.27-5.31	1. 대내 동향 6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7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7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인쇄: 2013년 7월 발행: 2013년 7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훈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6 June 2013

❶ 주차_6.01-6.02	1. 대내 동향 82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85
	3. 대남 동향 86
❷ 주차_6.03-6.09	1. 대내 동향 8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9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99
❸ 주차_6.10-6.16	1. 대내 동향 10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0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12
❹ 주차_6.17-6.23	1. 대내 동향 11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2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2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❺ 주차_6.24-6.30	1. 대내 동향 132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3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40
■ 5월 일지 / 146	
■ 6월 일지 / 148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01-5.05

5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총리, 노동절 맞아 “핵·경제 병진노선 관철” 강조(종합)(5/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1일 노동절 행사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황해도 송림시에 있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열린 5·1절 123돛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함.
- 박 총리는 보고를 통해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이 땅 위에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노동절 맞아 인민보안부 시찰(5/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청에 해당)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보안원과 인민내무군 장병과 기념촬영을 하고 인민보안부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음.
- 김 제1위원장은 “인민보안 기관과 내무군을 당의 정치보위대, 사회주의수호의 강력한 지지점, 무자비한 타격대, 인민의 믿음직한 보호자로 준비시켜야 한다”며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뭉개며 단 꿈을 꾸는 불순 적대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리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해외파견 근로자’ 이례적 칭찬(5/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해외에 파견한 일군과 근로자를 이례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북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 공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한 일꾼과 근로자, 군 장병에게 보낸 감사문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림.
- 김 제1위원장은 감사문에서 “공사기간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전국 각지의 인민들, 해외에 파견된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양심과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전투원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여 건설자들의 노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했으며 공원 꾸리기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희귀한 화초와 나무, 설비와 자재들을 마련하여 보내왔다”고 칭찬함.

● 北 김정은, 노동절 기념 은하수음악회 관람(5/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인민극장에서 공연 중인 노동절 기념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연 관람을 마치고 “당의 노선을 철저히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 믿음직한 선전자”라며 악단에 감사를 전달함.
- 음악회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전창복 군 상장(우리의 중장), 강필훈·렴철성·박정천 군 중장(우리의 소장) 등이 함께함.

● 北 김정은 첫 비서실장에 김창선…의전까지 맡아(5/5,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서기실장에 김창선 전 김정일 서기실 부부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함.
-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서기실 부부장을 지낸 김창선이 작년 초부터 김정은 서기실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잡지 “김정은, 작년 국제기호·단위 사용 지시”(5/5, 연합뉴스; 문화어학습)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제1위원장이 지난해 국제공용 기호나 단위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5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지 ‘문화어학습’ 최신호(2013년 2월 27일 발행)는 ‘김정일에국주의를 언어생활 분야에도 구현하시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어생활 분야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공용기호와 단위를 국제적 관례대로 쓰도록 하신 것”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은, 주민이 보낸 편지에 ‘친필’ 답장(5/5, 노동신문)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민이 보낸 편지에 ‘친필’ 답장을 보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사랑과 믿음으로 빛나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철도성 청년돌격대여단 3대대 박성민 참모장 등이 보낸 편지를 보고 친필 답장을 보냈다고 사진과 함께 소개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가족이 죄를 지어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노동당에서는 대대 참모장을 맡겨주고 김정일청년영예상까지 수여했다는 박성민 참모장의 편지에 ‘숨기고 싶었을 집안의 과거를 스스럼없이 터놓고 당을 믿고 따르는 좋은 청년입니다’라고 친필을 보냈다고 신문이 전함.

● 北 김정은, 잔디연구소 시찰…“맨땅에 잔디 심어라”(5/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부침땅(경작지)을 제외한 모든 땅에 나무를 심거나 풀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의 지시로 군인들이 평양 부근에서 3개월 만에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를 방문해 “꽃과 지피식물을 심어 빈땅이나 잡초가 무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김정은동향

- 5/1, 김정은 黨 제1비서, 4.30 금수산태양궁전 광장공원 조성에 이바지한 근로자 등에게 감사문 전달(5.1,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감사문 전달모임, 4.30 현지에서 진행(4.30,중방·평방)
- 김영남(감사문 전달),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원홍, 김양건, 박범기, 문경덕, 주규창, 로두철, 최부일, 태종수 등 참가

- 黨 중앙위, 4.30 '진명호' 선원들의 100항차 대외화물수송 보장에 대한 감사문 전달(5.1,중통)
- 감사문 전달모임, 리용남(무역상) 등 참가下 진행
- 5/2,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리설주와 함께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 관람(5.2,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양건 등 관람
- 5/2,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인민보안부 방문 및 제2219군부대시찰(5.2,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장성택 동행 및 최부일(인민보안부장), 리병삼(정치국장) 등 현지 영접
- 5/4,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인민극장에서 은하수음악회 관람(5.4,중통·중·평방)
 - 최룡해, 김격식, 황병서, 강필훈, 럽철성, 조경철, 김영철, 박정천, 전창복과 평양시 근로자들 등 함께 관람
- 5/5,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평양시 교외) 시찰(5.5,중·평방·중통)
 - 최룡해, 최태복, 박태성, 황병서 등 동행 및 군부대 지휘관들 현지 영접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인민군열사묘 건설장' 현지요해(5.3,중통·중방)
 -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꾼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 토의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은하수관현악단 창작가·예술인들에게 보낸 '감사'(『5.1절』 기념 은하수음악회 기여 치하) 전달 모임, 5.5 김기남(黨 비서) 등 참가下 은하수극장에서 진행(5.5,중통·중방)

나. 사회문화

● “모내기 준비 총력”…北, 5월 들어 ‘영농전투’ 독려(5/3, 연합뉴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북한이 5월 모내기철을 맞아 증산을 위한 ‘영농전투’를 독려하고 나섰다
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여기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모든 북한 매체들이 동원되고 있음.
- 노동신문은 3일 “봄철 영농전투로 사회주의 협동벌이 들끓는다”면서 두 면에 걸쳐 철저한 모내기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과 모범사례 등을 대거 실었음.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에 15년 노동교화형(종합)(5/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일 밝힘.
 - 통신은 “지난해 11월3일 라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함.
- **北-EU 작년 교역액 절반 이하로 급감(5/3,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교역 규모가 전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EU의 지난해 교역액은 6천 900만 유로로 전년(1억 5천 900만 유로)의 43.4%에 불과했고, 수출액이 대폭 감소했으며, 지난해 EU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전년(1억 1천 700만 유로)의 20.5% 수준인 2천 400만 유로로 나타남.
- **미국, 북한에 배준호 씨 사면·석방 공식 촉구(종합)(5/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적대범죄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사면과 석방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대한 우선순위는 없다”면서 “북한 당국에 배씨에 대한 사면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함.
 - 벤트렐 부대변인은 특히 “북한 사법체계에서 정당한 절차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오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대북특사 계획없다는 중국…북한과 ‘냉랭’(5/3, 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과 위협공세로 지난해 말 중단된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좀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나아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인 북중 관계 정상화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북한 도발의 명분인 한미 군사훈련이 지난달 종료되고 북한의 공세 수위도 낮아짐에 따라 중국이 조만간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중국에서 관측된 분위기는 이와 크게 다름.

- **北, 조총련계 상공인 박희덕 유해 열사릉 안치(5/3, 조선중앙통신)**
 - 박희덕 전 재일본 조선상공연합회 고문의 유해가 3일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박 고문의 안치식에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화환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통신은 “박희덕이 (조)총련 결성 초기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재일 조선인운동과 총련의 강화발전, 부강조국 건설에 헌신했다”고 강조함.

- **핵실험 이후 주춤했던 북·중 민간교류 활기(5/3, 연합뉴스; 제남시보(濟南時報))**
 -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뜸했던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육 등 민간 분야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제남시보(濟南時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주춤했던 북한 인사들의 방중과 중국 내 북한 예술품 전시회 등이 지난달 하순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의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전창효 부교장과 최고교육위원회 홍성남 독학 등 예술교육계 인사 6명은 지난달 24일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음악학원을 방문해 친선교류 활동을 진행함.

- **北, 日 개헌 움직임 비난…“전쟁헌법 시간문제”(5/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일본 정부의 개헌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일본에서 전쟁헌법이 생겨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극우익으로 맹질주하는 일본을 경계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베 정권이 일본 사회를 지난 70여 년 전의 전쟁국가를 연상시키는 극우익 풍조로 물들이고 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제96조를 개정해 개헌 발의요건을 낮춰 헌법 9조를 개헌하려고 한다고 지적함.

■ 기타 (대외 관계)

- 北,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 ‘12년 11.3 北 억류)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4.30, 최고재판소 재판)” 선고(5.2,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신문 “美, 상대 존엄있게 대해야 대화 가능”(5/2, 민주조선)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바란다면 대화 상대인 우리를 존엄있게 대해야 한다”고 2일 주장함.
- 민주조선은 ‘대화문제를 가지고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존엄 있는 주권국가이고 핵보유국인 조건에서 미국과 대화를 해도 평등한 관계에서 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이어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엄연한 핵보유국인 만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관계에서 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며 또 그 길만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의 유일한 길임을 미국은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함.

● NPT 준비회의 “北 추가도발 자제 촉구”(5/4, 연합뉴스)

- ‘2015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네바에서 열린 준비회의에서 북한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요약문(Chairman’s factual summary)이 채택됐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결과문서인 의장요약문에서 “북한은 지역과 그 주변에서 안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전작권 환수 연기 움직임은 북침야망 책동”(5/1, 노동신문)
 - 한미 양국 일각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비난함.
 - 노동신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움직임에 깔린 기도’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괴뢰호전광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어떻게 하나 연기하려고 설레발을 치는 데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며 “그것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매체 “빠라살포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5/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탈북자단체 등이 오는 4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빠라살포로 하여 초래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를 모독하는 너절한 종이장이 단 한 장이라도 우리 하늘을 어지럽히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개성공단 파국 주범은 미국”(5/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미국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실질적인 장본인, 진범인”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에 뺏긴 미국의 검은 마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서울에 기어들었던 미 국무부 부장관이란 자는 괴뢰들이 그 무슨 ‘중대조치’요 뭐요 하면서 공업지구 안의 저들 인원을 철수시키는데 대해 ‘전적인 지지’니, ‘이해’니 하며 적극 부추겨댔다”며 “결국 개성공업지구를 깨버리려는 괴뢰들의 책동이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힘.

● **초코파이, 평양서 전설적인 지위에 오르다(5/2, 가디언)**

-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초코파이가 북한 주민을 새로운 맛의 세계로 인도하며 평양에서 거의 ‘전설적인 지위’(legendary status)에 올랐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함.
- 초코파이는 남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해왔으며, 북측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개성공단 사업주들은 물품으로 대신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음.

● **北, 개성공단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허용 가능성(5/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북한은 개성에서 진행중인 남북 실무협의를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하라는 우리측 요구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우리의 기대에 맞는 반응을 보여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못박지도 않았다”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北 “개성공단 사태는 남한 책임” 거듭 주장(5/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일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인 것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함.
- 통신은 “남측 인원들의 전부 철수 등 공업지구 폐쇄 책동에 날뛰고 있는 괴뢰패당이 우리에게 대한 책임 전가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짓”이라고 밝힘.

- 이어 “남조선 괴뢰들이 폐쇄 직전에 이른 개성공업지구 사태의 책임문제를 놓고 우리를 계속 걸고 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과 지난달 22일 통일부 대변인의 통행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증가 언급을 지적함.

● **北에 1천 300만 달러 지급…개성공단 7명 귀환(종합)(5/3, 연합뉴스)**

- 개성공단 실무협의 타결에 따라 현지에 남아 있던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이 3일 오후 6시 50분께 전원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우리측 인원의 조기 귀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북측이 주장한 ‘미수금’을 이날 지급했으며 김호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위 직원 5명은 오후 현금수송차량 2대를 이용해 방북, 북측에 미 지급금을 전달하고 귀환함.

● **北매체 “개성공단 완전폐쇄 南태도에 달려”(5/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4일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폐쇄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괴뢰 패당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재차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로 몰아가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들은 개성공업지구를 오늘과 같은 첨예한 동족대결의 마당으로 만든 범죄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이같이 강조함.
- 논평은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내올 때 그 어떤 이익이나 덕을 바라란 것이 아니었다”며 “오직 동족대결을 끝장내고 통일을 떼밀어주는 화해와 협력의 상징, 평화번영의 기초가 되기를 바랄 따름이었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먼저 적대행위 중지해야 개성공단 정상화”(종합)(5/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지 이틀 만인 5일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

조선 괴뢰들은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진정으로 걱정되고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두렵다면 사태의 근원으로 되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기타 (대남 동향)

-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발간(5.1), 現 한반도 사태 관련 '韓美의 유엔 안보리결의 2087호(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제재)가 파국의 악순환 길에 들어서게 된 시발점'이며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이 북침핵시험 전쟁'이라고 왜곡 주장(5.1, 중통/조선반도긴장격화와 핵전쟁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다)

5.06-5.12

5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경제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내부결속 다지기…“黨은 인민의 운명 책임진다”(5/6,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노동당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 해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자기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란 제목의 논설에서 “원수님(김정은)께서 계시는 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에서는 사소한 변색도, 한치의 탈선도 없을 것”이라며 강조함.

- **北, 국가건설감독상에 권성호 임명(5/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6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3차 5·21건축축전 개막식 행사를 소개하면서 참석자 가운데 권성호를 국가건설감독상으로, 김석준 전 국가건설감독상을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장 겸 국가설계지도국 국장으로 호칭함.

- **北 김정은, 평양 주요 軍건설현장 시찰(5/7,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에서 인민군이 건설중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미림 승마구락부’(승마클럽) 등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이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본 뒤 “볼수록 멋있다고,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정말 잘 건설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군부대 수행 주목 박정천은 포병사령관(5/8, 연합뉴스)**
 - 최근 중장(우리의 소장)에서 상장으로 한 계급 승진한 북한 인민군 장성 박정천이 군 포병사령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8일 “최근 상장으로 승진한 박정천은 몇 해 전부터 포병사령관을 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박정천은 특히 김정은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최전선 부대를 시찰하고 각종 훈련을 참관할 때마다 수행해 주목을 받았다”고 말함.
- **北 김정은 부부, 은하수관현악단 ‘전승절’ 공연 점검(5/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경축공연을 준비 중인 은하수관현악단을 찾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통신은 8일 김 제1위원장이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 모란봉악단과 합동공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연 방향과 종목, 편성 등에 대해 지시했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전승 60돌 경축공연을 통해 국보적인 예술단체로서 위력을 과시해야 한다”며 “모란봉악단과 합동공연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지금부터 공연준비를 착실히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수행 세 ‘얼굴’… 최휘 당 제1부부장 주목(5/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행자 그룹에 최휘 당 제1부부장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북한 매체는 9일 김 제1위원장 부부가 전날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경축공연을 준비 중인 은하수관현악단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수행 간부에 최휘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소개함.
- **北 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점검(5/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아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박 총리는 현지에서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관철에서 전력증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는 대책을 논의함.

● 北 “농업은 반미대결전의 전선”…중산 독려(5/10,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주 타격 방향 농업전선 앞으로!’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먹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떠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 선군 혁명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라며 전 주민이 ‘영농 전투’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신문은 특히 농업이 “반미 대결전, 사회주의 수호전의 가장 첨예한 전선”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환기시킨 뒤 한국과 미국이 “우리가 잘사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고 천만부당한 제재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강대한 선군조선의 본태를 보여주자!”라고 호소함.

● 北 강원도당 책임비서에 박정남 임명(5/1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원도 올림명승지 현지도 10주년 보고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정남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원도회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경제관리 해결책 지시…시험 실시”(5/11, 조선신보)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지시해 일부 조치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북한 간부들이 전했다고 조선신보가 11일 전함.
-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1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나라의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할 데 대해 말씀을 주시고 일꾼과 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셨다”며 “우리는 연구기관, 경제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말함.

■ 김정은동향

- 5/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에서 건설중인 여러 대상들 시찰(5.7,중통·중방·평방)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미림שמ마구락부
 - 최룡해(軍총정치국장인 차수), 황병서·마원춘(黨 부부장들) 동행
- 5/8,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전승’(·정전협정 체결, 7.27) 60돌 경축 공연준비 점검 및 창작가 예술인들 접견 격려(5.8,중통·중방·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기남(黨 비서), 최휘(黨 제1부부장) 등 동행

- 5/12,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만경대유회장 현지지도는 '밝은 사상관점·일본새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적 계기, 모든 일꾼들은 영도자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참된 총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5.12, 중동·노동신문/사설, 일꾼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
- '김정일 애국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자의 참된 삶을 빛내어 나가자'고 독려(5.12, 중방/김정일 애국주의는 강성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 담보)
- 김정은, 만수대지구 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3,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아 과학자·기술자 등 격려(5.9, 중동)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관철에서 전력증산이 대단히 중요하며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
- 또한 이에 앞서 '문덕군 용림협동농장'의 영농실태(모내기 준비 상황 등)도 점검

나. 군사

- **北, 1호 전투근무태세 해제…무수단미사일 철수(종합)(5/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3월 미사일·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근무태세'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지난달 초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사거리 3천~4천km) 중거리 미사일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7일 "북한의 최고사령부가 3월 26일 전략로켓군과 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근무태세를 4월 30일께 해제한 것 같다"고 밝힘.

다. 경제

- **北 "식량부족은 세계적 문제"…자급자족 강조(5/6,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식량안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를 비롯한 국제 경제기구들과 전문가들이 올해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며 "그 어느 대륙,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제일 난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식량문제"라고 보도함.

- 신문은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식량부족으로 영양실조자가 계속 늘어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자 수가 세계적으로 약 8억7천만명에 달하였다”며 “식량위기는 몇몇 나라와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밝힘.

● 北, 모내기철에 총역량 집중 독려(5/8, 노동신문)

- 북한이 모내기 철을 맞아 국가 전체가 농사에 총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모내기 전투를 힘있게 벌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쌀은 곧 사회주의”라며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릴 수 있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함.

● 北 부동산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재정확충 목적”(5/9, 연합뉴스)

- 북한이 2000년대 중반 도입한 토지 등 부동산 사용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3년 1호에 실린 ‘부동산 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부동산 사용료를 바로 적용해야 부동산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 집중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밝힘.

● 北 “자본주의 문화는 독소”…확산 경계(5/9, 노동신문)

- 북한이 9일 출판과 문화예술, 전자매체 등을 통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문화가 내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회주의를 해치는 독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남한이 “방송과 출판물, 문예물은 물론 상품 등을 통해서도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북한에 주입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전자매체와 인터넷도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들 매체가 “인민대중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쪼먹고 해치는 독소”라고 지적함.

라. 사회·문화

- **北, 올해 아리랑 공연 7월 22일 개막(5/6, 코리아 컨설팅)**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이 오는 7월 22일 시작한다고 한 북한 전문 여행사가 6일 전함.
 - 스웨덴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컨설팅’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아리랑 공연이 7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4차례 진행된다”며 “티켓 가격은 일반석 80유로(약 11만5천원)에서 VIP석 300유로(약 43만원)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함.

- **北 전역서 주민편의시설로 롤러스케이트장 건설붐(5/7,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남포시와 원산시에 롤러스케이트장들이 건설돼 이곳을 찾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시에 이어 지방 주요 도시에도 롤러스케이트장을 건설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분기 조사결과 북한 주민 80%가 영양 부족(5/7, 미국의 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1분기 대북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북한 10가구 중 8가구가 영양부족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전함.
 - WFP는 올해 1~3월 북한 전역의 87개 가정을 방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0%가 영양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北 ‘자전거 투어 대회’ 개최(5/8,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열흘 동안 각지에서 계속되는 자전거 투어대회가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통신은 8일 ‘여러날 자전거경기’가 시작됐다고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는 경공업성체육단, 예성강체육단, 동명산체육단의 남녀 선수 50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힘.

- **北 지방서도 동물원 단장에 물놀이장 건설(5/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2년차를 맞은 올해 들어 잇따라 지방에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북한판 뉴타운’인 창전거리, 능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원, 만경대유회장 등을 평양에 세움.

- **北, 20대 교통 여경 띄우기…“수령 결사옹위 모범”(5/9,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선군시대 수령 결사옹위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지구대대원인 리경심은 불의의 정황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 보위했다”라며 “수령 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선군시대 인민보안원의 전형”이라고 치켜세움.
 - 사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리경심과 같이 “사심 없는 순결한 양심으로, 의리로, 신념으로 간직된 영예와 실천”이어야 한다며 노동당 조직들이 리경심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은하수관현악단 지휘자에게 인민예술가 칭호(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0일 윤범주에게 인민예술가 칭호를 수여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그(윤범주)는 조선 인민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혁명적인 음악작품들을 창작형상함으로써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 사회주의 조국수호정신과 원수격멸의 의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북한 황금평, 농사 준비 한창…개발 장기화 전망(5/6,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개발을 추진 중인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경제특구에서 올해 봄에도 영농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6일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에 있는 황금평 특구에서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곳곳에 못자리를 설치하고 각종 작물의 파종을 준비하고 있음.

● 北기술자 2명, 올 3월 유럽서 재생에너지 기술 연수(5/7, 연합뉴스)

- 북한 기술자들이 지난 3월 유럽을 방문해 재생 에너지 기술에 관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7일 스위스 민간단체 ‘아가페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에너지 전문가 2명은 지난 3월 독일과 스위스 등을 돌며 재생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연수를 받음.

● 北,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강력 비난(5/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을 “날강도적인 침략행위”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시리아 인민을 비롯한 아랍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리아의 자주권과 영토 완전(완전히 정리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며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함.

- **북한 체육계, 국제대회 참가 준비…협찬 타진(5/7, 중국망)**
 - 북한이 올해와 내년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 문제를 최근 중국 체육계 인사와 협의했다고 중국 관영 뉴스 사이트인 중국망(中國網)이 7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체육계와 친분이 두터운 중국 프로축구 선전(深천 <土+川>) 루비 FC의 왕치(王奇) 부회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북한 측의 초청으로 방북해 체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북한, 중국에 개성공단 철수 근로자 고용 요청(5/9, 아사히신문)**
 - 북한이 중국 측에 개성공단 철수 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은 9일 익명의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중국 선양(瀋陽)발 기사에서 북한의 지방 고위관계자가 4월 중순 중국 단둥(丹東)시를 방문해 중국에 파견하는 북한 근로자를 늘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함.

- **北 “케네스 배씨 변호 거절…범죄사실 인정”(5/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힘.

- **北 “이스라엘 이란 공격론 배후는 미국”(5/10,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대(對)이란 공격으로 부추기는 군사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군사적 원조까지 해가며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란 핵 협상 결렬 이후 이스라엘에서 이란 공격론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공중급유기 KC-135를 비롯한 대규모 군사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기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함.

● **중국 좌파 인사들, 지난달 북한 지지방문(5/10, 중앙통신(CNA))**

- 중국 좌파 인사들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지난달 중순 북한을 지지 방문했다고 대만 언론 중앙통신(CNA)이 10일 보도함.
- 대만 중앙통신(CNA)은 중국 주간지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 최신호를 인용, 중국의 대표적인 좌파 인터넷 사이트 유토피아닷컴(烏有之鄉·우여우즈샹) 회원 13명이 지난달 13~16일 북한을 찾았다고 전함.

● **北신문 “美, NPT 난폭하게 위반한 나라”(5/11, 노동신문)**

- 북한은 11일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비핵국가들에 대한 간섭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힘.
- 신문은 ‘비핵국가의 반발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말 스위스에서 열린 NPT 회의에서 이집트 대표가 이스라엘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이란이 NPT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자기 사명과는 달리 비핵국가들에 대한 불순세력들의 지배와 간섭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北노동신문 “日 우경화는 나라 망치는 길”(5/12, 노동신문)**

- 최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을 망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밝힘.
- 신문은 ‘일본의 우경화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날로 심해지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함.
- 또한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교과서 검정제도 수정 방침,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면서 이는 “일본의

현 대내외정책의 기본 목적이 정치의 극단적인 우경화, 군국화, 해외 팽창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강조함.

● **어나니머스 ‘조선의소리’ 등 北사이트 10여곳 공격**

-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북한 웹사이트 10여 곳을 공격해 이중 북한 라디오방송 ‘조선의 소리’ 홈페이지가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어나니머스는 12일 트위터(@AnonyOpsKorea)를 통해 “북한 라디오 방송 ‘조선의 소리’ 웹사이트를 해킹했다”며 해킹된 홈페이지의 캡처 사진을 공개함.

■ **기타 (대외 관계)**

- 【北 최고재판소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답변(5.9)】 배준호氏 재판에 대한 美정부와 언론들의 불투명성·법적 부당성발언 관련 ‘변호를 거절하고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범죄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주장(5.9,중통)
- 그의 범죄는 공화국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해당하나 솔직하게 인정한 것을 고려하여 15년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으며, 교화기간 공화국법에 따라 교화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될 것임.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보유는 정치적 흥정물 아니다” 거듭 주장(5/6, 노동신문)**

-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자신들의 핵보유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누구도 흥정할 수 없는 법적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핵보유를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로 농락하려 드는 미제와 괴뢰들의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법에 도전하는 극악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라고 주장함.

● **北, 美 의회 발의 “대북제재 법안은 자해행위” 비난(5/7,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논평에서 “최근 미국 의회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북한의 경제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보유한 핵은 경제적 혜택을 위한 그 어떤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北, 日 핵연료 반입은 “핵무장 시도” 비난(5/8, 노동신문)

- 북한은 8일 일본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산화물(MOX) 반입을 재개하는 것은 핵무장 시도라고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무장화를 노린 연료구입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계속 구입하는 기본 목적은 핵무장화를 다그치자는 데 있다”고 비난함.

● 北, ‘작년말 로켓발사때 여론전으로 적 교란’ 자부(종합)(5/10,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여론전으로 국제사회를 교란하고 주도권을 쥐었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조선노동당 간부의 내부 강연 ‘음성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신문 “서울시 탈북자 간첩사건은 모략극”(5/6,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터무니없는 모략광대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들이 연출한 ‘자유주간행사’니, ‘탈북자간첩사건’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체제에 감히 먹칠을 하고 북남관계를 극단적인 파국상태에 계속 비끄러매놓기 위한 또 하나의 모략광대극”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론조작으로 선거 판세를 뒤집은 불법무법의 망동 때문에 여론의 못매를 맞고 속대밭이 된 괴뢰 정보원이 생뚱같이 ‘탈북자 간첩사건’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그 알팍한 속타산이야 뻔하지 않은가”라며 “민심의 비난의 화살을 딴 데로 돌려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서해 연합훈련에 “즉시적 반타격전” 위협(종합)(5/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7일 한미 연합 대잠훈련 등을 거론하며 “적들의 도발적인 포사격으로 우리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보도’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5일부터는 백령도와 연평도주변 해상에서 또다시 아군지역을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산하 부대에 이같이 명령함.

● 北, 한미군사훈련에 반발…“서해 불바다” 위협(종합2보)(5/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이달 들어 새로 시작한 한미 군사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함.
- 북한은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에서 한미 군 당국이 지난 6일 시작한 서해 대잠수함 훈련과 오는 10일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한반도 해역 진입 등을 거론하며 “적들의 도발적인 포사격으로 우리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하라”고 산하 부대에 명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서남전선사령부는 “우리의 반타격전에 적들이 무모하게 대응하는 경우 서남전선지구에 전개된 로켓군부대(미사일부대)의 즉시적인 행동개시를 계기로 모든 타격집단은 조선 서해 5개 섬부터 불바다로 타번지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함.

● 北,朴대통령 방미에 “망신행차” 비아냥(5/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6면에 실린 2단짜리 ‘망신행차’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박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부터 낯뜨겁게 푸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함.

- **北, 美대통령 비난…“적대행위 멈춰야 충돌위험 없다”(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이나 위협을 언급해 진실을 오도했다며 “최근 새롭게 첨예화된 조미(북미) 사이의 대결은 다름아닌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 든 미국의 포악한 적대행위로 발단된 것”이라고 주장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고 “우리는 미국이 계단식으로 고조시킨 적대행위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위적 대응 조치들을 취한 것 밖에 없다”고 밝힘.

- **北매체, ‘윤창중 사태’ 비난…“불통인사”(5/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작가 박진경이 투고했다는 ‘성추행이 잘못된 인사 탓, 그 책임은’이라는 글에서 이번 사건을 “세계정치사상 처음있는, 그야말로 남조선 보수패당만이 세울 수 있는 수치스런 기록일 것”이라며 “그런 자들이 집권자의 주위에 진을 치고 있으니 청와대의 정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것은 눈을 감고도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주장함.

- **北조평통, 朴 대통령 방미 비난…“전쟁전주곡”(종합)(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기자와 문답에서 박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호칭하고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미국 행각 결과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이라고 주장함.
 -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함.

- **조선신보 “朴대통령 임기중 남북대화 의문”(5/11,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를 혹평하면서 현 정부에서 남북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신보는 ‘대화외교, 평화협상의 교란요인/ 남조선 당국자의 미국 행각’이라는 글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비판한 데 대해 “상대방의 심기를 일부러 건드리는 경직된 대북관이 현 당국자의 본색이라면 그의 임기 중에 북남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함.

● **北 조평통, 니미츠호 부산 입항에 반발…“군사도발”(5/1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서기국 ‘보도’를 내고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가 최극단에 이른 때에 최신 공중전쟁 수단들과 이지스구축함, 미사일순양함 등으로 구성된 핵 항공모함 전단까지 투입해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공갈이고 기어이 북침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번 훈련이 진행된다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시아평화구상’ 등을 언급한 것이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닛두리”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함.

● **北 매체, ‘윤창중 사건’ 연일 비난(5/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성추행 행각’이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안방주인의 외국 행각 도중 고위 수행원이 부끄러운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함.
- 신문은 “결국 미 의회에서 연설한다며 으스스대던 청와대 안방주인의 이번 미국 행각은 성추행 행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실패한 행각”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경색 국면 책임 전가하며 대남비난 지속(5/6, 노동신문)

- 북한은 6일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책임회피를 위한 비열한 소동’이라는 글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영영 폐쇄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반통일 대결에 환장해 날뛰 괴뢰당국이 져야 한다”고 전함.

● 北매체, 남측의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요구’ 비난(5/9,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태 재발 방지 확약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궤변”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재발방지확약 망발, 금강산관광 파탄 때와 똑같은 궤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 직전까지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데 누구에게 ‘확약’ 타령인가”라고 반문함.
- 그러면서 류 장관의 발언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던 때의 수법과 일맥상통한다”며 당시 남한이 3대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이 때문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고 주장함.

기타 (대남 동향)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5.10)】 대통령의 訪美기간 對北 발언(병진노선은 불가능한 목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들 관련 ‘상전의 눈도장을 찍고 주종관계를 확인하며 반공화국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사대매국행각, 동족대결행각’이라고 비난(5.10, 중통·중방·평방)
 - 미국행각 결과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이고 북침과 대아시아패권전략 실현의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임.
 - 우리(北)는 현 남조선당국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음.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36호(5.10)】 ‘천안함 사건은 北어뢰공격’이라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를 결단내기 위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조작한 특대형 反北 모략극’이라며 ‘역사와 민족,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5.10, 중통·평방)
 -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는 南의 양심적인 영화제작자들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민심과 여론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든 영화라고 주장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13-5.19

5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경제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5/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화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린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함.
 - 이번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경희·김기남 노동당 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과 최근 ‘수령 결사옹위의 모범’으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평양시 인민보안부 교통지휘대의 지구대원 리경심 등이 참석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연 관람 뒤 “총대와 법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목숨 바쳐 보위하려는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 장병들의 신념이 그대로 함축된 공연”이라며 치하함.

- **北 김정은, 새로 건설된 기계공장 시찰(5/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 주변환경을 보고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된 멋쟁이공장”이라고 치하했으며 생산조립장, 기계가공장, 정보실, 설계실, 기술공정실 등을 둘러본 뒤에는 “이 기계공장은 우리나라 기계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생산이 시작되면 그 효과를 단단히 볼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동행함.

- **北 김정은, 軍 식료품공장 시찰(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에서 새로 건설된 종합가공직장과 규모가 커진 즉석 쌀밥직장, 맛내기직장 등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생산 수준을 끌어올리

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고 노력을 절약하면서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함.

● **北,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창복으로 교체(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대의 식료품가공공장인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창복이 동행했다”고 소개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현철해에서 전창복으로 교체됐음을 밝힘.
- 차수인 현철해 전 제1부부장은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 중앙위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등을 맡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의 군사 교육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짐.

● **北 김정은, 룡문 술공장 현지지도(5/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8일 룡문 술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물 여과 공정과 술 생산·포장 공정, 저장고, 제품 진열실 등을 둘러보고 “해당 제품의 질에 대해 보증하고 선전에 이용되는 상표도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표를 잘 만들 것을 지시함.
- 이어 “현대적인 술공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설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아버지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근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고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전창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그리고 박정천 상장, 서홍찬 중장 등이 수행함.

● **북한 박봉주 총리, 잇단 경제현장 방문 행보(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박 총리가 황해북도 송림시에 있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함.
- 박 총리는 이 기업소에서 협의회를 열고 철강재의 생산 증대 문제를 토의

했으며, 내각 등 관련 기관에서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정은동향

- 5/14,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 원호사업 기여자들에 ‘감사’ 전달(5.14, 중방)
 - 봉화비누공장·옥류결혼식 식당 일꾼과 종업원, 관문2동 축산작업반장 이영희 등
- 5/1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軍 2월20일 공장’ 현지지도(5.17,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전창복(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동행
 - 공장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무인화를 실현하는 것이 생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음.
- 5/19, 김정은 黨 제1비서, 용문술공장 현지지도(5.19, 중통·중·평방)
 - 최룡해, 전창복, 박정천, 서홍찬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및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현지요해(5.16,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5.19, 중통·중방)

나. 군사

- 北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증가, 최대 200대 추정(5/17, 연합뉴스)
 -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TEL)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문건에 공개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 의회에 지난 2일 제출된 A4용지 20매 분량의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7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대 200대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北, 단거리 미사일 3발 동해로 발사...軍, 경계강화(종합3보)(5/18, 연합뉴스)
 - 북한이 18일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유도탄 3발을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2회, 오후 1회 등 3차례에 걸쳐 동해안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발사체가 무수단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아닌 단거리 발사체인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전함.

● 北, 단거리 발사체 이틀연속 발사…신형방사포 가능성(종합2보)(5/19, 연합뉴스)

- 북한이 18~19일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19일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동해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다. 경제

● 北 총리, 남흥화학 방문… 비료생산 독려(5/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 증산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박 총리는 기업소 간부와 노동자들에게 “농업전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주 타격 방향이고 비료는 곧 쌀”이라며 “비료생산을 늘려 올해 알곡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비료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에 석탄을 잘 보장해줘야 한다며 석탄 수송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함.

● 北 국가가격제정위→국가가격위 개칭(연합뉴스; 평양방송)

- 북한이 국정가격을 정하는 기구인 국가가격제정위원회를 국가가격위원회로 개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17일 각 기관 및 단체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지원 소식을 전하며 “국가가격위원회, 국가관광총국의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후방물자, 생활필수품 등을 마련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제16차 ‘평양불철국제상품 전람회’, 5.13 강석주(내각부총리)·리룡남(무역상)·박웅식(국제전람회 사장/개막연설)·오룡철(무역성 부상/축하연설) 등 참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5.13,중통·평방)

라. 사회·문화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北, 자체 생산 치료제 소개(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조선부강제약회사 사장과 의 대담 형식의 기사를 통해 “신형 조류독감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금당-2’ 주사약을 소개함.
 - 통신은 신형 AI 환자들은 모두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몸을 단련하고 면역을 높이는 데 필요한 약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北, 도시미화법 제정…‘사회주의 문명국’ 박차(5/15,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5월 9일자 ‘법규 해설’ 코너에서 도시미화법을 소개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함.
 - 민주조선에 따르면 도시미화법은 5장 42조로 구성됐으며, 법의 목적은 “도시의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도시청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이바지하는 것”임.

- **北,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조(5/17, 조선중앙TV)**
 - 북한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의 박명수 원장은 17일 조선중앙TV에 출연, H7N9형과 H5N1형 AI의 인체 감염으로 인한 중국의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제반 사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함.

- **北 AI 방역 총력…비상방역위원회 구성(5/18,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지난달 중앙과 각 도, 시, 군 단위에서 비상방역위원회가 구성돼 각급 단위별로 위생교육과 검진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함.
 - 보건성도 효과적인 위생교육을 위해 AI 예방을 위한 ‘해설담화 제강’(기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적은 글)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 내려 보냄.

2 대외 관계

가. 일반

- **중국, 최근 북한에 비료 20만t 무상 지원(5/14,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량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데 이어 조만간 식량 원조도 재개할 방침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방송은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달 말께 북한에 20만t 이상으로 추산되는 비료를 제공해 집단 농장들에 배급하도록 했다고 전함.

- **FAO 북한사무소 대표 “북한 기근 사실무근”(5/14, 이타르타스통신)**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사무소 대표인 벨라이 데르자 가가가 14일 (현지시간) 북한 기근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함.
 - 그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전역에서 작황을 관찰 중인 유엔식량농업기구 직원들은 기근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 기근은 없다”고 설명함.

- **아베의 도박?…일본 정부 인사 전격 방북(5/14, 연합뉴스; 교도통신)**
 - 2002년과 2004년 1, 2차 북한·일본 정상회담에 참여한 이치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 14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일본의 교도통신을 인용하여 보도함.
 - 교도통신은 이치마 참여는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함.

- **北 노동신문, 日에 과거청산 거듭 촉구(5/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일본의 죄악의 역사는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글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 인적, 물질적 피해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최대최악의 것이었다”라며 일본은 “국가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했었다”고 강조함.

- 신문은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죄행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며 “여기에 바로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과 교활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함.
- 또한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는 “반인륜적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도덕적, 국제법적 문제”라며 “죄악에 찬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역설함.

● OIE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北에 전문가 파견 준비”(5/15, 미국의 소리 (VOA))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한 북한에 대한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베르나르 발라 OIE 사무총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과 접촉 중이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수일 안으로 현지에 전문가들을 보낼 것이라고 밝힘.

● 中 여행사 “외국인 北 신의주 관광 곧 개시”(5/15,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조만간 외국인의 신의주 관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 “케네스 배, 특별교화소서 교화생활 시작”(5/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국 공민 배준호가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함.
- 통신은 배 씨가 지난달 4월 30일에 열린 재판에서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힘.

● 北 김영일 당 국제비서, 日정부 인사 면담(5/15, 조선중앙방송; 교도통신)

-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가 방북 중인 일본의 이치마 이사오(飯島 勳·67) 특명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함.

- 당 국제부장을 겸임하는 김 비서는 북한의 대 일본 외교 핵심 당국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일우호친선협회 고문도 맡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이지마 참여가 17일까지 북한에 체류하며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 등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협의 진전 상황에 따라 체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힘.

● **美민간단체, 우물파기 사업 위해 다음달 방북(5/1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가 다음달 말 방북해 북한 지하수개발 관계자들과 우물파기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방송은 린튼 대표가 2007년부터 매년 평균 2차례 북한을 방문해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했으며 황해북도 연탄군 도치리를 비롯한 6개 마을에 우물을 만들었다고 전함.

● **중국 창바이~북한 혜산 국경교량 보강 착수(5/16, 길림신문)**

- 중국이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과 북한 양강도 혜산시를 잇는 국경교량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 공사에 나섰다길림신문이 16일 보도함.
-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량 증가로 창바이통상구와 교량을 통한 화물차 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450만 위안(약 8억 1천만 원)을 들여 교각과 상판 등을 보강하고 도로포장을 새로 하기로 함.

● **북한 제작 ‘아프리카 에펠탑?’ 천덕꾸러기로 전락(5/1, 글로브앤드메일)**

- 세네갈에서 아프리카의 에펠탑을 꿈꾸며 등장한 ‘북한표’ 조형물이 현지 정권교체와 함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고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지난해 물러난 압둘라예 와데(86)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세워진 이 기념상은 당시에도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동상 개막 행사를 앞두고 와데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음.

- **訪北 사흘째 日내각 인사 일행, 평양시내 관광(5/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가 평양시내 여러 곳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함.
 - 중앙통신은 “일본 아베 내각 위기관리 특별담당 참여 이지마 이사오 일행이 평양민속공원을 참관했다”라며 “그들은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공원의 여러 곳을 돌아봤다”고 밝힘.

- **北 ‘2인자’ 김영남, 日총리 자문역 면담(종합)(5/16, 조선중앙TV)**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6일 방북 중인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총리 자문역)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TV는 “김영남 동지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 아베 내각 위기관리 특별 참여 이지마 이사오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전함.

- **방북 日총리자문역 귀환…“장시간 진지한 협의”(종합)(5/17, 교도통신)**
 -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총리 자문역)가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北京) 국제공항을 통해 귀환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함.
 - 이지마 참여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진지하게, 장시간 회담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그는 그러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밝히지는 않음.
 - 이지마 참여는 지난 14일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16일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는 북일 대화의 실무 책임자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가 배석함.

- **北, 美 ICBM 발사시험 비난…“군사적 도전”(5/18, 노동신문)**
 - 북한은 18일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이유로 내세우며 오는 21일 ICBM 발사 시험을 공언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희롱이며 모독이 아닐 수 없고 특히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전”이라고 밝힘.

● **北, 외교부 日이지마 방북 비판 브리핑 비난(5/1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특명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의 방북이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외교부 논평에 대해 ‘추태’, ‘망동’ 등의 표현으로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주제넘는 참견질, 추악한 본색이 발로’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국가간에 일정한 계층의 정치인들이 오고가는 것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라며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중국 어선, 무장한 북한인들에 나포…中당국 조사(5/19, 연합뉴스)**

- 중국 어선이 북한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들에게 나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북한 서쪽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던 한 중국 어선이 무장한 신원불상의 북한인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이 어선의 선장인 위쉐권이 주장함.

● **北 평양서 외국인 자선마라톤대회 열려(5/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고아 돕기를 위한 외국인의 자선 마라톤대회가 이달 초 평양에서 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약 50명은 이달 1일 평양에서 열린 자선 마라톤대회에 참가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미국무성 대변인 발언(北의 국제적 의무이행, 의무준수 진지함 등)에 대해 ‘국제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설’이라고 비난하고, 現 한반도 사태는 ‘美的 對北적대시정책에 있다’고 책임 전가(5.13, 중통)

- 美 합참의장 발언(韓美日 통합미사일방위체계 구축 등)에 대해 “군사적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흥심의 발로”며 ‘아시아태평양 지배 실현을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라고 비난(5.13,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美 고위관리 “北 핵무기 소형화 기술 개발 못 해”(5/15, 연합뉴스)

-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이 아직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서울에서 열린 외신과의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 표적을 향해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核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민족적 금지이고 자랑’이라며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만년재부’라고 지속 강조(5.13,중통)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노동신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핵개발 책동”(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최근 진행된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핵무기 개발 책동”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핵무장 야망에 비긴 원자력 협정 개정 놀음’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핵무장 야망’을 실현하고 ‘북침’ 기도를 손쉽게 이루려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핵물질 추출부터 핵탄두 및 핵무기 운반 수단 제작 기술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에 필요한 것들을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단기간에 ‘북침’ 핵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힘.
- **北매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겨레에 대한 모독”(5/1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내놓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 ‘모독’, ‘궤변’ 등의 표현으로 비난함.
 - 매체는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민족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안고 사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 **北, 美항모 니미츠호 참여 한미훈련 맹비난(5/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도발은 누가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니미츠호의 해상훈련 등을 언급하고 “조선반도(한반도) 긴장격화의 주범, 핵전쟁 도발의 장본인들이 아직도 우리의 도발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도 ‘긴장격화의 새로운 불씨’라는 논평에서 니미츠호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모험을 예리하게 주시하

고 있다”며 “만일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감히 불질을 해댄다면 그 후과(결과)는 실로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함.

● **北신문 “한반도 정세 조금도 완화되지 않아”(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남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을 반박함.
- 신문은 ‘조선반도(한반도) 핵위기 사태가 주는 심각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이어 지난 11일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한미합동훈련을 언급하고 “조선반도 정세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허황한 망상” 비난(5/1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망상이라고 밝힘.
- 논설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미국의 세계제패 야망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는 허황한 망상일 뿐”이라며 이 구상에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함.

● **北, ‘신뢰프로세스’ 본격 비난…“동족대결정책 복사판”(5/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대결과 신뢰는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바 없다며 “실패한 과거의 대결정책 복사판을 그대로 들고나온 것은 변함없는 동족압살 야망의 발로”라고 주장함.
- 통신은 박 대통령이 이달 초 방미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신뢰프로세스)이 동족대결 각본임을 논박할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함.

- **北 “5월에도 한반도에 폭발위험 첨예한 국면 조성”(5/16, 노동신문)**
 - 북한은 이달 초순 동해 상에서 실시된 한미 해상훈련과 서해 대잠수함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 “5월에도 폭발위험을 안은 첨예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함.
 - 신문은 ‘무모한 핵공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군사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이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훈련이라는 명분 밑에 조선반도 수역에 집결시킨 것은 우리의 핵군사력에 대한 희롱”이라며 이같이 밝힘.

- **北, 5·18 ‘영웅적 봉기’ 평가…반미투쟁 선동(5/18, 노동신문)**
 - 북한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일인 18일 5·18을 ‘영웅적 무장봉기’로 평가하고 ‘친미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를 위한 영웅적 항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5·18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한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 대중항쟁”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회담 제의 비난…“南정권 상대해야 할지 검토중”(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박근혜정부와 상대해야 하는지를 검토중이라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측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 상에서 실시된 한미 해상훈련을 거론하며 “현 정권을 상대해야 하겠는지, 상대해야 해결될 것이 있겠는지를 우리는 지금 심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함.
 - 대변인은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할 의향이 있다면 근본문제를 푸는 데로 나서야 한다”며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개성공업지구 전망과 금후

북남관계 향방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기타 (대남)

-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총대변인 담화(5.13), 새누리당의 법률 제정안(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발의에 대해 “反민족적·反통일적·反인권적 범죄”라며 ‘反새누리당 투쟁’ 지속 선동(5.13, 중통·중방)
-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등 訪美 국정수행에 대해 “추악한 사대매국적 체질, 외세의존적 자세를 만천하에 드러낸 치욕행각, 구걸행각”이라고 지속 폄하 비난(5.14, 평방·노동신문)
- 국군 8군단의 대침투종합훈련 예정, 연합뉴스 인용 비난(5.14, 중통·중방)
- ‘韓美 연합군사훈련’ 관련 ‘미국은 핵타격 수단의 수적우세를 내세워 對北침략전략을 실현하고 우리(北)의 자주권·생존권·발전권을 침해말살하려는 것’이 ‘훈련목적’이라고 주장(5.19, 중통·평방·노동신문/합동군사연습의 범죄적 목적은 감출 수 없다)

5.20-5.26

5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묘향산 소년단야영소 방문(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9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안북도 묘향산 기슭에 있는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김 위원장의 야영소 방문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최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태성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또다시 군부대 시찰... 위협발언은 없어(5/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05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이번 시찰에는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손철주 군 총정치국 부국장, 전창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장성 림광일, 리만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수행함.

- **北, 군 총참모장에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 임명(5/22,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총참모장이 현영철에서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22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으로 출발했다는 보도에서 공항에 나온 환송 인사 명단을 소개하면서 군 총참모장을 ‘김격식 동지’로 호명함.

- **北 김정은, 軍 수산물기지·식료품공장 시찰(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산하 제639군부대의 동해후방기지와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제639부대의 동해후방기지는 어선과 물고기 냉동 및 절입 설비, 배수리 시설을 갖춘 수산물생산기지로 군인들과 군수공업 노동자, 평양시 어린이들 등에게 물고기를 공급함.
- 김 제1위원장은 동해후방기지의 목욕탕, 식당, 휴게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지난해에도 최고사령관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부대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었다”고 칭찬했으며 배수리 시설을 찾았고 선반가공실에서 부부 선반공을 만나 격려함.

김정은동향

- 5/20, 김정은 黨 제1비서, 5.19 리설주와 함께 ‘평양시 묘향산등산소년단 야영소’ 시찰(5.20,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최휘(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박태성(당 중앙위 부부장) 동행
- 5/21,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와 405군부대 시찰(5.21, 중통·중방·평방)
 - 장정남·손철주·전창복·림광일·리만건(平北道黨 책임비서) 동행
- 5/2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軍 제639군부대관하 ‘동해후방기지’ 및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 가공공장’(※‘11.11.13, 김정일 시찰) 현지지도(5.26, 중통·중방)
 - 손철주, 전창복, 박정천, 서홍찬 동행
- 5/26,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해군 291군부대 시찰(5.27, 중·평방)
 - 손철주·전창복·박정천·서홍찬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 내각 총리,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5.21, 김정은 현지지도 보도) 건설정형 현지 요해(5.23,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지하자원 탐사 성과 선전(5/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몇 년간 북한 각지에서 지질탐사가 진행돼 유망한 지하자원 개발 후보지들을 찾아냈다고 24일과 25일 차례로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연료·원료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전망탐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며 각지 지질탐

사대가 “탄광·광산 개발 후보지를 더 많이 마련하고 새 광물자원을 찾아 내는 데 필요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확증했다”고 전함.

● **北 국제상품전람회 띄우기…신형차에 나노신발까지(5/26,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 제16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5월 13~16일)는 폐막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북한 매체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전람회에 출품된 제품에 관한 기사를 25, 26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정성무역회사가 만든 뇌기능강화제 약품 ‘레은교갑’을 소개했고 그 하루 전에는 비누 등의 여성용 제품이 인기가 많았다고 전함.

● **조선신보 “최룡해 방중, 대화국면 전환 전제”(5/25,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5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는 ‘중국에 파견된 군복 차림의 특사 / 평화변영에 대한 조선(북한)의 입장 전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22~24일 방중해 6자회담 등의 대화를 언급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고 “조선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평화변영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다. 군사

● **北, 단거리 발사체 2발 또 발사…사흘째 ‘무력시위’(5/20, 연합뉴스)**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11~12시 KN-02(지대지)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4~5시 추가로 1발을 발사했다”면서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18일 3발, 19일 1발에 이어 이날 2발까지 모두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20일 발사체도 강원도 원산 부근의 호도반도에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으며 120km 안팎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짐.

라. 사회·문화

- **北,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인(5/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중앙수의방역소와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 등이 지난 7일 검사를 갖고 평양의 두단 오리공장에서 오리들과 철새들의 접촉으로 H5N1형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했다고 밝힘.
 - 북한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관련 국제 기구에 발병 상황을 통보하고 해당 오리공장에서 기르던 16만여 마리의 오리들을 도살처분 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탁구 세계선수권 금메달…자축분위기 ‘들썩’(5/20, 연합뉴스; 조선중앙 TV)**
 - 북한 매체들은 20일 결승 경기와 시상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녹화중계하고 두 선수의 가족과 모교의 반응을 상세히 전하는 등 우승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50분부터 30여 분간 결승전을 녹화중계하면서 득점 표시를 위해 이례적으로 인공기와 태극기 그림을 나란히 화면에 띄움.

- **건축물 현대화나선 北, 건축대학 이름도 ‘리모델링’(5/26, 연합뉴스)**
 - 최근 각종 건축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이 관련 유명 대학의 이름도 현대식으로 바꿔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26일 입수된 북한의 ‘교육신문’ 최근호(5월 16일)는 북한의 건축, 건설 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평양건설건재대학’이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힘.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이 대학을 “세계적인 건축과학기술 인재 양성소로 꾸려주기 위해” 명칭 변경을 지시했다고 설명함.

● 北, 국제예술경연서 잇단 성과…영재교육 효과?(5/2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4일 북한의 유별미(11) 양이 제1차 아스타나 국제청소년 피아노콩쿠르에서 2등을 했다고 전함.

-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이 콩쿠르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국, 호주 등 20여 개 나라에서 온 7~18세의 청소년 140여 명이 참가함.

● 北,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 추진(5/26, 연합뉴스; 경제연구)

- 연합뉴스가 26일 입수한 북한의 경제 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159호(4월 14일 발행)는 ‘상업기업소(유통업체)의 경영자금 이용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개인 필명의 논문에서 전자결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 논문은 “전자결제 방법의 적용은 시대의 요구이며 그 우월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휘되고 있다”며 “모든 상업기업소들에서는 결제의 전자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日 ‘우경화·과거사 정당화’ 비난(5/20,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우경화로는 새로운 일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중장기 방위력 운용지침인 방위계획대강 수정 움직임에 대해 “해외 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도 20일 ‘일본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글에서 “일본은 과거에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 무조건적이며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정부, 어선 북한 억류 확인(5/2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다렌 어선 라오푸위(遼普漁) 25222호가 북한 측에 붙잡혀 억류된 것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라오푸위 25222호의 선주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사관이 북한 외무성과 접촉, 어선과 어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함.
- **北, 싱가포르 유람선 이용 나진-금강산 관광 시작(5/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관광선 황성호를 이용한 제1차 나진-금강산 국제관광단이 이날 고성항 부두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북한, 억류 중이던 중국 어부들 석방(5/21, 인민망(人民網))**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21일 오전 8시15분께 북한이 억류 중이던 어선과 선원들을 석방했다고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이 21일 밝힘.

- **중국 정부 “북한, 어민 억류사건 설명하라”(5/21, 연합뉴스)**
 - 중국 어선이 서해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측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우리는 조선(북한)이 이번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중국에 그 결과를 설명하고 철저한 조치를 해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일본 아오모리 해안서 북한 주민 시신 발견(5/21, 교도통신)**
 - 일본 니가타현, 아키타현에 이어 아오모리현 해안에서도 북한 주민 시신이 발견됐다고 21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일본 경찰은 옷 주머니에 북한 지폐 30장이 들어있고, 란셋수트에도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 이름이 적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주민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힘.

- **유엔인구기금, 北 산모 의료품 지원(5/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사무소는 지난달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50만 달러를 들여 북한 보건시설 300여 곳에 산모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美 스탠퍼드대 의료진, 평양서 결핵치료기술 전수(5/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스탠퍼드대 의대와 미시간주 앤드루대 의료진이 지난 15일 평양에 들어가 2주 일정으로 북한의 의료 및 보건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결핵 치료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北김정은, 中에 특사 급파…한반도 정세 변화 주목(5/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중국신문사)**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22일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 특별비행기로 2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룡해는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는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이며, 특사단에는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과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수길 중장(우리의 소장) 등 군부 인사가 포함됨.
 - 북한 특사단은 22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께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뒤 방중 첫 일정으로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전함.

● **중국 외교부 “북중, 한반도 정세 논의할 것”(5/22, 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것을 계기로 북중 양국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이번 방문 기간 중·조(북·중) 쌍방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및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힘.

● **北, 美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에 반발(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우리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우리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하는 방법으로 압박해보려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거론하면서 “배준호 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고 제도를 전복해 보려는 정치적 목적에 종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매체 “북중관계 강화·발전문제 논의”(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22일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양국관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최 총정치국장은 다오위타이(釣魚臺) 영빈관에서 왕 부장을 만났으며 류 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양이앤이(楊燕怡) 부장조리를 비롯한 대외연락부 관계자들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배석함.
-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지마 “북한과 사무협의를 모두 끝냈다”(5/23, 연합뉴스)**

-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일본 내각관방 참여는 자신이 지난 14~17일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과 북·일 수교 협상 재개 등과 관련한 사무적 협의를 모두 끝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이지마 내각 참여는 23일 오전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번 평양 방문과 관련, “사무적 협의는 전부 끝났으며 남은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판단”이라고 말함.

● **北, 나선특구 통한 북한 관광 상품 내달 허용(5/23, 연합뉴스)**

- 러시아와 접한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 함경북도 칠보산 등을 방문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등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측 사업자로부터 다음 달부터 나선을 통해 입출국하는 새로운 경로로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힘.

● **최룡해 “북한, 관련국과 대화 원해”(5/23, 중국중앙TV(CCTV))**

-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북한)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3일 보도함.
- 최 총정치국장은 “조선은 정력을 다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을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한 것이 북중 관계를 개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 **최룡해, 판창룡 부주석 면담…대화의사 거듭 표명(종합2보)(5/24,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중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판창룡(范長龍)을 만나 대화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 총정치국장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외빈 접견실로 사용되는 ‘바이다러우’(八一大樓)를 방문, 판 부주석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각 당사자와 공동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함.
 - 최 총정치국장은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복잡, 특수해 평화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선 인민은 국가 건설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 **‘김정은 특사’ 최룡해, 시진핑 예방(5/24, 신화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예방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함.
 - 통신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 총정치국장 일행을 접견했으며 최 총정치국장은 시 주석에게 김 제1위원장의 친필 서신을 전달함.

- **북한, 日에 경제제재해제·총련건물 계속사용 요청(5/25, 교도통신)**
 - 북한측은 지난 14일 평양을 방문한 이지마 이사오(飯島勲·67) 일본 내각관방 참여(參與)와 가진 일련의 회담에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도쿄본부 건물의 계속 사용 등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북일 소식통을 인용, 25일 보도함.
 - 이지마 내각참여는 17일까지 4일간 평양에 머물면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 담당대사 등과 회담, 북한의 일본인납치 문제 등을 논의함.

- **北, 美 ICBM 시험발사 비난…“위협의 진범”(5/26,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몰아오는 진범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문제

- 시될 것이 없는데 북침핵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기 위한 우리 군대의 군사훈련을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는 적대세력의 나발은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주장함.
- 논설은 “오늘의 조선반도(한반도) 현실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반미 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최룡해(총정치국장), 5.22 김정은 특사로 訪中(5.22, 중통·중방)
- 리영길(인민군 상장), 김성남(당 중앙위 부부장), 김형준(외무성 부상), 김수길(인민군 중장) 등 동행
- 訪中 최룡해(총정치국장) 특사, 5.23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참관(5.23, 중방·평방·중통)
- ‘류제이’(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동행
- 최룡해 특사, 5.24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 및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친서 전달(5.25, 중통·중·평방)
- 리영길(軍상장), 김성남(黨부부장), 김형준(외무성 부상), 김수길(軍중장), 지재룡(駐中 대사)
- 양결지(국무위원), 왕가서(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 부주석), 장업수(외교부 부부장), 정설상(당 중앙위 판공청 부주임), 류결일(대외연락부 부부장), 양연이(부장조리) 등 참가
- 최룡해(정치국 상무위원, 軍 총정치국장), 5.23 류원산(中 정치국 상무위원)과 인민대회당에서 면담 및 연회(5.24, 중통·중·평방)
- 최룡해, 5.24 범장룡(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중국인민해방군 8.1청사에서 면담(5.24, 중통·중·평방)
- 최룡해(정치국 상무위원, 軍 총정치국장), 5.24 비행기로 귀국(5.25, 중통·중·평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北 보유 핵무기’ 이례적 해설 주목(5/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월12일 북한이 감행한 제3차 핵실험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밝힘.
- 이어 “작용 특성, 폭발 위력을 비롯한 모든 측정 결과들이 설계 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중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물리적으로 과시하고 적들을 전율케 했다”고 주장함.

● **최룡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 대화 원해”(종합2보)(5/24,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북한측 입장을 피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이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적시해가며 대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핵보유와 핵포기 불가’를 강조하며 “핵을 대화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는 미국의 망발은 개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미국의 ‘북핵 현실직시’ 주장(5.23,중통·노동신문)
- “미국이 우리(北)에게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 가는 것은 필수적 요구”라고 ‘병진노선’ 정당성 지속 강조(5.23,중통·노동신문)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조평통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 군사훈련”(5/20,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은 지난 18~19일 이틀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밝히고 이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가증되는 북침 핵전쟁 책동에 대처해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힘.

- 北, 6·15선언 기념행사 남북공동 개최 제안(5/23, 연합뉴스)
 - 북한이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 하자고 제안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받은 팩스 원본을 공개함.

- 北 “南 정권 ‘5·24 조치’ 고수” 비난(5/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5·24 조치 3주년을 맞은 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전면대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5·24 조치를 취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도 반공화국 대결 소동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있다”고 주장함.
 -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남한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었지만 집권 세력은 ‘북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지하며 대결적 본색을 드러냈다고 밝힘.

● 조평통,朴대통령 ‘최고존엄 모독’ 비난(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4일 북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최고존엄 모독”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의 최고존엄과 정책노선을 정면으로 헐뜯은 것”이라며 “북남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려는 무례무도의 극치”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번 발언으로 박 대통령이 밝혀온 ‘실패’의 “기만적 정체가 여지 없이 드러났다”며 “이번 망발은 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이성도 체면도 다 잃어버린 정신병자의 무분별한 도발”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함.

● 北, 朴대통령 첫 실명 비난…남북관계 더 꼬이나(5/25, 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남측이 제안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부정적 반응을 이어갔고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함.
- 특히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박 대통령을 “괴뢰대통령 박근혜” 또는 “박근혜”라고만 지칭하고 “황당한 귀변”, “요사스런 언행”, “악담질” 등의 원색적인 표현도 동원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南, 개성공단 정상화 입장부터 밝혀야”(5/20, 조선중앙통신)

- 개성공단 담당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조선 민심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제품의 반출이 아니라 바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라며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내외 앞에 똑똑히 밝혀야 할 때”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어리석게 민심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근본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며 남한 정부의 태도에 따라 북한은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국방위, 박 대통령 병진노선 발언은 “악담”(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5일 북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며 “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뜻하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직접 거론하면서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등의 “무엄한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악랄한 흥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함.

■ 기타 (대남)

-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사파쇼도당에 대한 광주에서의 대중적인 반파쇼민주항쟁”이라고 강조(5.20, 평방·노동신문)
- 박 대통령 訪美 관련 ‘우리(北)에 대해 악담과 대결공조 확약의 대가로 5년 집권과 생존보호에 대해 담보 받은 것밖에 없다’며 ‘상전에 대한 굴욕외교, 구걸행각이었다’고 비난(5.21, 중통)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現 집권세력은 과거 독재정권의 연장선 위에 생겨났다’며 “인민들의 反美反파쇼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5.22, 중통·평방·노동신문)
- [중통 논평] 韓美 연합 군사훈련 및 해상훈련 실시 관련 ‘우리(北)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공갈이며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핵위협으로 우리(北)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지속 비난(5.22, 중통)
- [중통 논평] 韓美의 ‘北 미사일 발사’ 지적(北 도발 등)에 대해 “정상적 군사훈련”이라며 ‘우리(北) 군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나 격동상태에 있다’고 호도(5.23, 중통)
- ‘現 정권에서 광주대학살 장본인들이 유신독재 부활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북침전쟁도 발채동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있다”고 주장(5.23, 중통·노동신문)
- 통일부의 ‘개성공단문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그 책임을 우리(北)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말장난”이라며 ‘對北 대결망동 중단’ 지속 주장(5.23, 평방)

5.27-5.31

5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해군부대 시찰…“함정 잘 숨겨라”(5/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군 제291군부대를 찾았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전함.
 - 김 위원장은 바닷가에 무질서하게 정박해 있는 해군 함정(공기부양정)을 목격하고 “적들이 항시적으로 우리 군사대상물을 탐지하려고 하는데 맞게 군부대가 장비한 전투기술 기재(장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싸움준비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함.

- **北 김정은, 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현지지도(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달 초 수산사업소에 보내준 어선 4척을 어부들이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고 “좋은 고깃배를 갖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 최전선 군인들에게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해줌으로써 당에서 마련해 준 고깃배가 은을 내게 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어선의 조타실과 기관실, 선실 등을 둘러본 뒤 “군인들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그들에게 요구성도 높일 수 있다”며 “후방사업에 싸움준비 완성과 군기확립이 달려있다”고 강조함.

- **北 김정철, 고위층 자제 모임 ‘봉화조’ 수령 역할(5/30,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周刊))**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형인 김정철이 북한 고위층 자제 모임인 ‘봉화조’(烽火組)의 수령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의 순조로운 통치를 돕고 있다고 중국 준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운영하는 주간지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周刊)이 30일에 전함.
 - 신문은 “현재 32세인 김정철이 봉화조의 수령이 됐다”며 “봉화조는 앞으로 김정은의 통치과정에서 근위대(近衛隊)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국제공용어 안내판 세워라”(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원산의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와 청년야외극장을 현지지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이 야영하는데 편리하게 국제공용어가 표기된 안내판을 세워줘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김정은동향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마식령스키장 현지지도(5.27, 중통·중방·평방)
 - 손철주·전창복·박정천·서홍찬 동행 및 박승원(軍 상장) 등 현지 영접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해군 291군부대 시찰(5.27, 중방·평방)
 - 손철주·전창복·박정천·서홍찬 동행
- 5/28, 김정은 黨 제1비서,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 현지지도(5.28,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김격식, 장정남, 리영길, 손철주, 량철성, 전창복, 윤동현, 조경철, 안지용, 김수길, 황병서 동행
- 5/31,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및 청년야외극장 현지지도(5.31, 중통·중방·평방)
 - 최휘(黨 제1부부장), 박태성·마원춘(黨 부부장들)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현지요해(5.27,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내각 총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의 생산실태와 석성탄광 개건정형 현지 요해(5.29, 중통·중방·평방)

나. 경제

● 北, 기업소 임금 재량권 확대(5/27, AP통신)

- 북한당국이 기업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고 AP통신이 27일 평양발로 보도함.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업소들이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는 국가가 표준 임금을 결정해 기업소들이 일정액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이 제는 “개별 근로자들이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벌 수 있게 됐다”고 말함.

● 北 ‘온실 벗모’ 확대…농업 과학화 시도(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질보장을 기술지도의 중심으로 틀어쥐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안북도 운전군 협동농장이 모내기 실적을 높이고 있다며 육묘 방법을 소개함.
- 신문은 운전군협동농장의 간부들이 온실에서 벗모를 기르는 방식을 중시하는 것은 실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올해 온실과 영양단지모판에서 모를 키우는 새로운 방법을 적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북한 女마라토너들, 압록강 국제마라톤대회 석권(5/27, 중국신문망)

-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26일 개최된 ‘2013 압록강 국제마라톤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여자부 풀코스 1~3위를 휩쓸었다고 중국신문망이 27일 전함.
- 이번 대회에 총 12명의 선수를 파견한 북한은 흥춘미가 2시간 53분 14초의 성적으로 여자부 풀코스 우승을 차지했고 정은주와 백은경이 이 부문 2위, 3위를 기록함.

● 탁구세계선수권 우승 北선수 ‘금의환향’(5/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프랑스 파리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북한 혼합복식조 김혁봉·김정이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공항에는 최태복 노동당 비서, 리영수 당 부장, 리종무 체육상, 전용남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인사들이 직접 나가 이들을 맞이함.

● 北 휴대전화 가입자 200만명 돌파(5/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휴대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北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운동 소개(5/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평양에서 보건성, 상업성,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토론회가 열렸다고 31일 보도함.
- 토론회에서는 금연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으며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물도 상영됐다고 통신이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능라민체육공원 및 평양국제축구학교 준공식, 5.30 현지에서 진행(5.30,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내각총리, 준공사), 최태복, 문경덕, 김인식(내각부총리), 리용수(黨부장), 리종무(체육상), 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참가

2 대외 관계

가. 일반

● 김정은 9월이전 방중 희망 피력…중국 화답안해(5/27, 뒤웨이)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오는 9월 이전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인터넷 매체 뒤웨이(多維)가 26일 보도함.
- 뒤웨이는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했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24일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때 전달한 친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며 중국 측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알았다”고만 말하고 김 제1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방중 시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화답을 하지 않음.

● 왕자루이, ‘北中은 일반적 국가관계’(5/27, 연합뉴스)

- 최근 중국을 다녀온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중국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 우리 방중단에 중국과 북한 관계를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말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방중단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자루이 부장과 충칭시 당서기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중국 측 핵심인사를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힘.

● **중국 “법, 인도주의 원칙 따라 탈북자 처리”(5/28, 연합뉴스)**

- 라오스 정부가 한국행을 바라던 탈북 고아들을 중국에 추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구체적 방향 제시 대신 기존의 모호한 탈북자 처리 방침만 재차 확인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라오스로부터 넘겨받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중국의 관련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우리는 한결같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북한)의 불법 입국자 문제를 처리한다”고 밝힘.

● **북, 정전협정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부 참석 요청(5/29,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방중 당시 중국 최고지도부에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7월27일)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중국측이 즉답을 피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복수의 베이징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북측이 참석을 요청한 최고 지도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가리킨다”며 “중국 매체는 최룡해가 방중시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지만 실제로는 기념행사에 중국 최고지도부를 참석시켜 한·미·일 등의 압력에 대항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식량 원조도 요청했다”고 전함.

● **北, 일본판 NSC 창설 시도 비난…“한반도 재침 야망”(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일본이 미국을 본떠 저들식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려 하고 있다”라며 “일본 당국자들은 NSC를 내오려는 이유에 대해 그 누가 자기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갓 기만”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일본 당국이 NSC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논의하고 결정해 한반도 재침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며 일본의 NSC 창설 시도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함.

- 또한 앞으로 일본판 NSC가 창설되면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위한 모든 정책이 여기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 무력이 NSC의 결정으로 군사작전권을 발동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함.

● **북한, 중국 단둥에 문화·상품홍보시설 마련 추진(5/29,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의 최대 교역 루트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조선(북한)문화전파센터’를 설립하고 ‘조선전람중국 단둥상품전시기지’를 건립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시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5일 북한 대외전람총국 김일렬 부국장이 단둥에서 단둥시무역촉진회 린쉐웨이(林學瑋) 회장과 회담하고 관련 사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힘.

●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지난해와 비슷(5/29, 미국의 소리(VOA))**

- 올해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VOA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집계한 자료를 인용, 올들어 이달 28일 현재 세계 각국과 유엔 기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3천153만달러(약 357억원)로 작년 동기 3천26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함.

● **중국 어선들, 북한과 뒷거래 10년 넘게 이어져(5/29, 제노만보)**

- 중국 어선들이 북한 측에 뒷돈을 주고 북한 해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10여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제노만보(齊魯晚報)가 29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동강(東港)의 어민들을 상대로 취재한 기사에서 ‘북한 경비정에 빌붙다’는 의미의 ‘방팅(幫艇)’이란 용어가 단둥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며 현지의 중국 회사 3곳이 일종의 보호비인 방팅비를 대신 받아 북한과 나눠 갖는다고 보도함.

● **북한, 대중 수입 감소…제재 영향(5/29,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통관 검색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압박에 나서면서 북한이 중국에서 각종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 해관(세관) 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올해 1~4월 북한은 중국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8% 감소한 10억1천5만6천799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1~4월 기간 북한의 수입액이 감소한 것은 중국 세관 전산망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2010년 이후 처음임.

● **일본 아베 총리 “김정은 납치 문제 결단하길”(5/29, 도쿄방송(TBS))**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9일 저녁 민영방송인 T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인 납치는) 부친(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납치 행위와 관계가 없다”며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또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함.

● **일본, 국제기구 근무 북한인 방일 허용(5/30, 아사히신문)**

-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북한 남성이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 방일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함.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본부 이탈리아 로마) 소속의 북한 국적자 김충진씨는 6월1일부터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리는 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회의 참석차 29일 일본에 입국함.

● **獨 민간단체, 7월 평양서 北 관료에 행정교육(5/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의 비정부기구(NGO)가 오는 7월 평양에서 북한 관료들에게 선진 행정을 교육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열려고 준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장은 RFA에 “북한 관료들에게 지방도시에 대한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행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힘.

● **국제사회, 북송 탈북청소년 ‘안전보장’ 요구(종합2보)(5/31, 연합뉴스)**

- 국제사회는 최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강제송환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함.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이들 청소년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 **北 주재 스웨덴대사관, 수감중인 케네스 배 면담(5/31, 미국의소리(VOA))**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북한 ‘특별교화소’(교도소)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만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전함.
- VOA는 스웨덴 대사관 측과 배 씨의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하지 않았고 국무부 관리는 특별교화소가 어떤 시설인지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힘.

● **유엔, 탈북청소년 북한 강제송환 확인(종합)(5/31, 연합뉴스)**

-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1일(현지시간) 9명의 탈북 청소년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제네바 유엔본부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출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5명의 미성년자를 비롯 대부분 20대 초반 이하의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北, 선제적 비핵화 불가 입장 재천명(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미국은 위협과 도발론을 걷어치워야 한다’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북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전쟁억제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국가의 최고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믿음직한 방패”라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보장이 실현되려면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함.

● 北, 핵보유 또 강조…“핵보검 틀어질 것”(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1면을 통틀어 1만2천여자에 달하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진로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고귀한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을 과감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논설은 “우리나라(북한)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의 본거지도 무자비하게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된 것은 우리가 반제대결전을 총결산할 수 있는 근본열쇠를 쥐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최후승리는 강력한 핵무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전함.
- 논설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않거나 핵보유를 지향하다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그것을 포기한 결과 침략의 희생물이 된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다”며 이라크와 리비아 사태를 간접적으로 거론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北)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北核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며 ‘선제적 비핵화 不可’를 再次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對北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5.28, 중통·노동신문)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정전협정 파기, 평화협정 체결” 공세(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조선반도의 정전체계 유지책동은 반공화국 전쟁기도의 산물’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발발을 막을 수 없다”라며 “조선전쟁의 유물인 정전체계는 하루빨리 공고한 평화체제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일찌기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됐더라면 비핵화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며 전협정으로 완전한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미국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6·15북측위 “내달 3일 개성서 실무접촉하자”(5/30,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는 다음달 3일 개성에서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남측위에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측위의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북측위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으며, 북측위는 이번 답신에서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남측 대표단의 통행과 통신, 신변안전 등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확인함.

● 北 “6·15공동행사 열면 개성공단 문제도 풀릴 것”(5/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민족공동의 선언을 부정하는 매국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15)공동행사 등을 통해 혈연의 정이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운운하는 개성공업지구 운영 정상화 문제를 비롯한 문제들도 자연히 풀리게 돼있다”고 밝힘.

- 통신은 “천리 길도 한걸음에 시작된다고 지난 5년간의 최악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데 그 무슨 방식과 격을 따로 정하고 시야비야한다면 민족의 백년대계는 오늘의 시점에서 또다시 멈춰서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기업인 방북시 개성공단 정상화협의 가능”(5/28, 연합뉴스)

-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물론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할 의사를 표시하며 이들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측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기업가들의 방문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우리는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北, 朴대통령 ‘당국대화’ 강조에 “우리 성의 목살”(6/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의 성의를 목살하는 온당치 못한 언동”이라고 전함.
-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무엇을 보여주었나’라는 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은 물론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통해 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공명정대한 제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기타 (대남)

- 北, ‘韓美 당국이 北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여론화하며 모락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체제를 중상모독하며 북침의 흥계를 꾸미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5.27, 중통·노동신문)
- 北, 우리 軍의 ‘태극연습(5.29~31) 훈련’ 예정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5.28, 중통·중방)
- [중통 논평]대통령의 ‘北 병진노선’ 지적(새로운 도박·성공不可,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접견時)에 대해 “동족대결과 남북관계 파탄의 길로 나가기로 작심한 것”이라고 비난 지속(5.29, 중통)

- [중통 논평] 北, 6.15공동행사 제의'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기자회견(진정성 의심, 남남갈등 조장, 정치적 의도 등)을 거론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 민족의 대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北)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왜곡 비난(5.30,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01-6.02

6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동해안 유명 마전해수욕장 방문(6/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의 손꼽히는 해수욕장인 함경남도 마전해수욕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마전해수욕장을 찾아 샤워장, 안전감시대, 식당, ‘휴양각’(숙박시설) 등을 둘러본 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 수준으로 다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수용능력이 큰 현대적인 휴양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개건사업에 달라붙어 다음해 여름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함.

- **탈북고아 송환한 北 “김정은의 어린이사랑” 선전(종합)(6/1,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 전역에 방송되는 유일한 TV 채널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이날 어린이와 관련된 글이나 사진, 특집 프로그램 등에 많은 지면과 방송 시간을 할애해 국제아동절 분위기를 띄움.
 - 평양에 있는 경상유치원의 리강죽 원장은 이날 노동신문과 인터뷰에서 “끝없이 베풀어지는 원수님(김정은)의 사랑 속에 유치원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함.
 - 조선중앙TV는 새로 제작한 ‘미래를 꽃피우시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이틀 연속 내보내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여러 공개활동에서 어린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함.

김정은동향

- 6/1, 김정은 黨 제1비서, 마전해수욕장 및 인민軍 제1521호 기업소에 새로 건설한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 현지지도(6.1, 중통·중방)
- 최룡해, 장정남, 손철주, 최휘, 박태성, 마원춘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6.1 국제아동절】 63돌 기념행사 등 동향
 - 친선연환모임, 6.1 만경대유회장에서 진행(6.1,중통·중·평방)
 - 최태복(黨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김용진(내각 부총리)·리영수(黨 부장)·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로성실(『여맹』 위원장) 및 평양시내 어린이·여성들과 駐北 외교대표들·대사관 성원들과 어린이 등 참가
 - 리향 허준혁·류수연(평양대동문유치원·평양긴마을1유치원) 등 어린이들, 김정은에게 ‘편지’ 및 ‘김정은의 친필 답전’ 소개(6.1,중통)
 - 평양과 함흥시 등 전국 각지 탁아소·유치원들·유원지 등에서 어린이들의 체육유희오락경기에 예술상품공연 진행 등 ‘명절분위기’ 선전(6.1,중통·중방)
 - 김정일·김정은父子의 ‘어린이 사랑’ 칭송 및 ‘국제아동절 제정 意義’ 등 소개(6.1,중·평방/조국의 미래를 가꾸신 위대한 사랑·국제아동절)

나. 경제

● 北, 기업소 임금 재량권 확대(5/27, AP통신)

- 북한당국이 기업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고 AP통신이 27일 평양발로 보도함.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업소들이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는 국가가 표준 임금을 결정해 기업소들이 일정액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개별 근로자들이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벌 수 있게 됐다”고 말함.

● 北 ‘온실 벚모’ 확대…농업 과학화 시도(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질보장을 기술지도의 중심으로 틀어쥐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안북도 운전군 협동농장이 모내기 실적을 높이고 있다며 육묘 방법을 소개함.
- 신문은 운전군협동농장의 간부들이 온실에서 벚모를 기르는 방식을 중시하는 것은 실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올해 온실과 영양단지모판에서 모를 키우는 새로운 방법을 적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밝힘.

● **북한, 농민에 잉여생산 처분권…인센티브 시행(6/1, AP통신)**

- 북한이 올해 모내기 철부터 농민에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일 함흥발로 보도함.
- AP통신에 따르면 생산 촉진을 위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에서 관리자 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 조치가 지난 4월1일 발표되었는데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줄 급료를 정하고, 실적을 올리는 데 이바지한 이들에게는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다는 내용이며 함흥 동봉협동농장의 김종진 농장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인용, 올해에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북한, 상업·유통 부문 자율성 강화 추진(6/2, 연합뉴스; 조국)**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2013년 6월호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내각 상업성의 오영민(43) 국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오 국장은 인터뷰에서 “상업성에서는 계획된 상품만 받아서 계획된 상업망들에만 넘기는 도매상업 기업소들의 운영 방식을 계획 상품은 물론 계획 초과분, 계획 외의 상품 등 모든 상품을 정보망을 통해 소개하고 임의의 소매망들로부터 주문받아 운송해주는 운영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힘.
- 그는 “지금 우리 상업 부문들에서는 상업망들의 운영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 사회·문화

● **북한 소년단 7차대회 참석 지방 대표들 평양行(6/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소년단 7차 대회에 참가할 함경북도 대표들이 이날 열차로 청진시에서 출발했다며 “함경북도 당·정권기관 및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청소년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들을) 환송했다”고 전함.
- 평양방송도 양강도 소년단 대표들이 이날 특별열차로 양강도 혜산시에서 출발했다고 밝힘.

2 대외 관계

- **WFP, 北 관리들과 함흥서 식량문제 연수회(6/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달 북한 관리들과 함께 식량문제를 주제로 연수회를 진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전함.
 -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함경남도 함흥에서 열린 연수회에는 디르크 슈테켄 WFP 북한사무소장과 WFP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품공장의 북한인 관리자, 북한 당국자 등 72명이 참가함.

- **北매체, 김정일 첫 방중 상기…‘북중친선’ 강조(6/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이던 1983년 첫 외국 방문지로 중국을 찾은 사실을 소개하며 북중 친선을 강조함.
 - 신문은 30년 전 이날 있던 김정일 위원장의 첫 방중을 다룬 ‘대지에 차 넘친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심과 친선의 정’이라는 글에서 김 위원장이 “조중(북중) 친선의 의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중국땅에 불멸의 자욱을 새겼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일 첫 방중 30돌 맞아 ‘북중친선’ 연일 강조(종합)(6/2,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1면 머리에 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중 친선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첫 외국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것은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함.
 - 사설은 김 위원장의 첫 방중 이후 “오늘에 이르는 30년의 역사는 조중 친선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친선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북중 친선의 강화·발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강조함.

3 대남 동향

- **北, 朴대통령 ‘당국대화’ 강조에 “우리 성의 목살”(6/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의 성의를 목살하는 온당치 못한 언동”이라고 전함.
 -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무엇을 보여주었나’라는 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은 물론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통해 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공명정대한 제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北매체 “통일장관, 개성공단 사태 오도” 비난(6/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사실을 오도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매도하고 있다고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류 장관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민간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밝힌 데 대해 “사실 전도의 파렴치한 궤변이고 생역지”라고 주장함.
 - 논평은 “우리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재개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남조선 기업가들의 공업지구 방문을 허용하고 제품반출을 승인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모든 성의를 다 보였다”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북한의 제의를 ‘위선’, ‘남남갈등’이라고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단”이라고 주장함.

6.03-6.09

6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南과 ‘불과 350m 거리’ 최전방 초소 방문(6/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원도 중부 최전방에 있는 오성산과 까칠봉을 찾아 남쪽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전방지휘소에도 들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2일 ‘오성산을 지키고 있는 초소들’과 이 초소들을 관할하는 제507군부대를 시찰했다며 그가 가파른 산의 정점에 올라 “최전연(최전선)의 높고 낮은 산발들을 부감하면서 군부대의 방어전연에 대처하고 있는 적진과 적정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지형지물들을 상세히 요해(파악)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노작’ 뒤늦게 소개…“제품 질 높여라”(6/4, 연합뉴스; 천리마)**
 - 북한의 월간 대중잡지 ‘천리마’ 5월호가 ‘질 제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작년 12월 15일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일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노작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입수·보도함.
 - 잡지는 “(김 제1위원장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주셨다”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자면 무엇보다 먼저 규격화 사업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며 국제적 규격을 적시에 파악하고 새로운 규격을 국가적으로 통일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강원도 과수농장 현지지도(6/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확장공사를 한 강원도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과수농장 확장공사를 맡은 ‘618건설돌격대’의 성과를 보고받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집행 결과를 파악했다고 통신이 전했으며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 최휘 노동당 제1부부장, 박태성 당 부부장, 박정천 군 상장, 안지용 군 중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마식령 스키장 올해 완공하자” 독려(6/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체 주민과 군인에게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올해 안으로 끝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4일 ‘마식령 속도를 창조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마식령 스키장 건설은 주민들에게 더 훌륭한 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려고 노동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라고 밝히면서 스키장 건설이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대공사이지만 올해 안으로 세계적인 스키장을 건설하자는 노동당의 결심에는 “추호의 드팀(빈틈)도 없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버섯공장 현지지도(6/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지어진 보성버섯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공장을 둘러보며 버섯 균 생산, 재배, 원료 물질을 준비·가공하는 기질 생산 등의 공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으며 김경옥, 최휘 당 제1부부장과 박태성, 황병서 당 부부장 등이 동행함.

● 北 소년단 제7차 대회 개최…김정은 참석(6/6, 조선중앙방송)

- 북한 소년단 제7차 대회가 창립 67주년인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소년단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위해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시켜야 한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있어 소년단원들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강조했으며 소년단 규약 개정 문제와 소년단원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충성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서,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채택함.

● 北 김영남, 마식령 스키장 건설현장 시찰(6/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7일 강원도의 마식령 스키장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마식령 스키장은 조선노동당이 매우 중시하는 건설 대상”이라며 “스키장 건설을 올해 안으로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독려했으며 또한 “마식령 지구에 세계 일류급 스키장을 건설해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드팀없는(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6/3, 김정은 黨 제1비서, 6.2 오성산 초소들과 제507군부대 시찰(6.3,중통·중방·평방)
 - 김격식(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박정천(육군상장), 안지용(육군중장), 최휘(黨 제1부부장), 박태성(黨 부부장) 동행
- 6/3,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49군부대 돼지공장 현지지도(6.3,중통·중방·평방)
 - 박정천(육군상장), 안지용(육군중장), 최휘(黨 제1부부장), 박태성(黨 부부장) 동행
- 6/4, 김정은 黨 제1비서,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6.4,중통·중방)
 - 김격식, 최휘, 박태성, 박정천, 안지용 동행
- 6/4,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각지 소년단 아영소들에 악기·문화용품 전달 및 ‘김정은 선물’ 전달모임, 6.3-4 각각 진행(6.4,중통·중방)
- 6/5, 김정은 黨 제1비서, 6.4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올해 마식령스키장건설 완공’ 독려 ‘호소문’ 발표(6.5,중통·중방·평방)
- 6/5,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보성버섯공장 현지지도(6.5,중통)
 - 김경옥·최휘(黨 제1부부장들), 박태성·황병서(黨 부부장들) 동행
- 6/6,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6.6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 참석 (6.6,중방·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 리영수(黨중앙위 부장), 김승두(교육위 위원장)동행
- 6/8,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지도(6.8,중통·중·평방)
 - 최룡해·문경덕·백계룡·최휘·박태성·전창복 등 동행
- 6/9,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6.9,중통·중방)
 - 선물 수여 모임, 6.9 전용남(「청맹」위원장) 참가자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인민군대가 건설하고 있는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정형 및 사리원市 '미곡협동농장' 현지요해(6.6,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함흥지구 중요 공장·기업소 현지요해(6.9,중통·중방)
-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함흥모방직공장·함흥편직공장·흥남전극공장 현지요해

나. 경제

● 北 나선특구 세일즈…“황금의 삼각지대”(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는 황금의 삼각지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여러 나라의 기업가들이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경영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곳에 커다란 호감을 갖고 투자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은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러시아의 원동과 중국의 동북 지방, 몽골을 포괄하는 자원이 풍부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배후지로 하고 있다”며 “이 지역들에서 방대한 경제적 자원들이 개발·이용되는 경우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중계수송기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함.

● 北 경제개발구법 제정…경제특구 확대 추진(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에서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됐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5월 29일 발표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라면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국가는 투자자에게 토지 이용, 노력 채용, 세금 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설명함.

다. 군사

- **北 현영철 전 총참모장, 최전방 5군단장 전보 확인(6/3, 연합뉴스)**
 - 북한 현영철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강원도 중부전선을 방어하는 5군단 사령관으로 전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을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뉴스는 노동신문 3일자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일 최전방 ‘오성산 초소’들을 시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은 관련 사진에 현 전 총참모장의 모습이 포착었다고 밝힘.

- **北, 서해 항행금지구역 선포…해안포 훈련인 듯(6/8, 연합뉴스)**
 - 북한이 평안남북도 서한만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오늘부터 내주 초까지 서한만 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 같다”면서 “해당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군, ‘대화 국면’ 무관하게 훈련 활발(6/9, 연합뉴스)**
 - 북한군이 최근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분위기와 무관하게 동·서해에서 활발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군은 지난 6~7일 동해 원산 앞바다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신형 장비로 추정되는 화기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전함.

기타 (대내 군사)

- ‘김정은 호소문’ 과업관철 군인결기모임, 6.5 최룡해·장정남 등 참가下 현지에서 진행(6.5,중통)

라. 사회·문화

- 북한서 ‘김정은 배지’ 등장…체제 공고화 상징(6/3, 연합뉴스)
 -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상이 새겨진 배지가 지난달부터 등장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배지는 아직 수도 평양의 일부 간부층을 중심으로 배포돼 북한 주민들이 널리 착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식통은 “김정은 배지를 단 사람도 이 배지만 다는 것은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 배지와 나란히 다는 경우가 많다”고 전함.

- 北 “황해북도서 구석기 동굴 유적 발굴”(6/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 인류진화발전사연구집단이 최근 황해북도 승호군 금옥리에서 구석기시대 동굴 유적을 발굴·고증했다고 4일 보도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中 “탈북 청소년 사건, 송환협력 요청 못 받아”(6/3, 연합뉴스)
 -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송환협력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중국 여행사들 “북한 관광 재개됐지만 반응 시들”(6/3, 중국신문사)
 - 중국인의 북한 육로 단체관광이 최근 재개됐지만 예년과 달리 관광객이 적어 랴오닝성 단둥(丹東) 등 변경지역 여행사들이 모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국신문사가 3일 전함.
 - 단둥 최대 여행사인 단둥중국국제여행사 관계자는 “긴장된 한반도 정세 뿐만 아니라 북한 관광을 떠나려는 관광객이 적어 북한 관광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년에는 6월이 북한 관광 성수기였는데 올해는 언제쯤 정상화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함.
- 北, 군 간부 보내 시리아 정부군 지원(6/3, 아샤르크 알아우사트)
 - 북한이 내전 중인 시리아에 군 간부들을 파견해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일간지 아샤르크 알아우사트가 3일 보도함.
 - 인권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의 라미 압텔라흐만 대표는 이 신문에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 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11~15명이 정부군을 돕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군 장교들은 알레포 남동쪽 군수공장과 시내 정부군 기지 등 여러 곳에 배치됐다. 북한군 장교들은 직접 전투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병참 지원이나 작전 계획에 관여하고 있으며 정부군의 포격을 감독하기도 한다”고 전함.
- 北 경작지 비율, 세계 평균보다 4%p 높아(6/4, 연합뉴스)
 -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에서 북한 농업 전문가로 활동해온 톰 모리슨 씨는 지난 3일 북한 전문 블로그인 ‘사이노 엔케이’(SINO-NK)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경작이 가능한 땅은 전체 면적의 15%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중국과 미얀마와 같은 수준”이라며 “이는 전세계 국가의 평균 10.6%보다 높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그는 식량 수출국인 호주는 경작지 비율이 6%이고 식량안보를 달성한 인도네시아도 11% 수준이라며 “북한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경작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북·중 신압록강대교 주탑 완공…내년 7월 개통(6/4, 중국신문사)**

-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현수교인 신압록강대교의 주탑이 최근 완공됐다고 중국신문사가 4일 전함.

● **라오스 “청소년 ‘정치적 망명’ 인정못해”(6/4, 연합뉴스)**

- 라오스 정부는 최근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논란과 관련,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탈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배경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흐영 세인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은 4일 인터뷰에서 한국인 2명이 “나이 어린 학생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왔다고 밝히면서 탈북 청소년들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향력 행사와 북한과의 특수관계 등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함.

● **주북 中대사 “북중, 새로운 역사적 단계 들어서”(6/4,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현시기 중조(북중)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류 대사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방중 30주년에 즈음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고려호텔에서 개최한 연회에서 “(양국관계는) 호상 존중, 호혜공영의 원칙에서 공동으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北 “日의 위안부 망언은 양심에 도전하는 야만행위”(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위안

부 관련 망언 등을 거론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일본) 우익세력의 책동은 일본의 전도를 해치는 자멸 행위”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인류 양심에 도전하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성노예 문제에 대한 태도는 일본이 지난 세기 인류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배상과 직결돼 있는 초미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함.

● **北 아동 3명 중 1명은 발육부진(6/6, 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13 식량·농업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은 32.4%에 달한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평균치인 26.8%보다 높은 수치로, 필리핀(32.3%), 미얀마(35.1%), 인도네시아(35.6%) 등과 비슷했으며, 특히 중국(9.4%)의 3배를 넘음.

● **일본정부 “남북대화 움직임은 좋은 일”(6/6,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한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양측 사이에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대립 상태보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스위스, 스키장 설비 대북 반출 반대(6/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스위스 업체들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스위스 연방정부가 대북 물자 반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스위스 연방경제부 관계자는 자국 기업이 스키장 건설 장비와 시설을 북한에 수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수출 관련 문의를 해온 기업들에 제재대상인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함.

● **중국 훈춘~북한 원정리 새 교량 건설 준비 막바지(6/7, 연변일보)**

- 중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지린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나선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

- 교)의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오는 10일 마무리된다고 연변일보가 7일 보도함.
- 신문은 지난달 12일 새 교량 건설과 관련된 현지 답사와 환경평가가 이뤄졌으며 지질답사보고가 완료됐다고 전했으며 수토확보보고, 홍수막이논 증보고, 토지심사의견, 지질재해평가보고 등의 절차가 오는 10일 끝나다고 덧붙였다.

● **WFP, 北 주민 240만 명 식량지원계획 승인(6/8,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다음 달부터 1년간 북한 주민 240만 명에 식량을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WFP는 이번 주 이탈리아 로마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함.
- 프랜시스 케네디 WFP 본부 대변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사회가 승인한 신규 지원사업이 시작된다면서 “WFP는 내년 6월까지 북한 어린이와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 등 240만여 명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김정일의 첫 방중('83.6.1) 30돌 즈음 '보름간 2만5,000여리 방중 성과' 칭송 및 김정일의 중국 특사(최룡해) 파견은 “조중친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北-中친선 강화발전’ 재차 강조(6.4,중통·민주조선)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영변핵시설 1~2개월뒤 가동 가능(6/4, 연합뉴스)**

- 북한이 이르면 1~2개월 후에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22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은 최근 5MW급 가스흑연 원자로와 20~30MW급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ELWR)를 포함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MW급 원자로의 재가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원자로 2차 냉각을 위한 새로운 장치는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함.

● **스웨덴 연구소 “북한 핵보유국으로 간주할 수 없어”(6/4,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스테파니 블랭크너 SIPRI 대변인은 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기폭장치 제작을 넘어 핵무기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췄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며 “북한을 여전히 핵보유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SIPRI의 입장”이라고 설명함.

● **미·중 정상, 北 핵보유국 불인정·한반도비핵화 합의(종합3보)(6/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이틀간 양국 간 정상회담이 열린 캘리포니아주(州) 랜초미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이번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 도널런 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3 대남 동향

- 北 “南의 ‘남북관계 국제화’ 논리는 대결 책동”(6/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외세를 끌어들이며 개혁, 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개성공업지구는 ‘6.15’의 산아, ‘우리 민족끼리’의 상징”이라며 “외세에 의해 강토가 두동강나고 하나의 민족이 근 70년 세월 분열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도 부족해 개성공업지구와 비무장지대에까지 외세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를 가로막고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힘.
- 北, 한미일 합동훈련은 “평화 위협 범죄행위” 비난(6/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위험한 3각 군사동맹 구축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얼마 전에 일본 규슈의 서쪽 해역에서 미일남조선 합동군사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진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 훈련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함.
 - 또한 “미일남조선 합동군사훈련을 통한 3각 군사동맹 강화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며 침략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힘.
- 北, 청소년 탈북사건에 “유인납치행위” 비난(6/5, 연합뉴스)
 - 북한이 5일 탈북 청소년 9명이 최근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에 대해 남한이 먼저 ‘유인납치’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우리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납치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다 발각된 반인륜적 만행 사건이 드러났다”며 남한 당국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행을 추진한 사람을 ‘종교의 탈을 쓴 인신매매 거간꾼’이라고 주장한 뒤 “(이들이) 수십 명의 우리 청소년을 유괴납치해 비밀 은신처에 가둬놓고 온갖 악행을 감행했다”면서 성경과 찬송가를 외우게 하고 이를 못하면 몽둥이로 구타해 온몸에 멍이 들고 정신적 압박으로 말투까지 이질화됐다고 주장함.

● **北, 한미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비난…“군사적 도발”(6/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한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구실로 연합방위력 강화를 떠들며 현재의 연합군사령부와 맞먹는 새로운 연합전구사령부를 내올 기도를 드러낸 것은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다”며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비난함.

● **北,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포괄적 당국회담 제의(6/6,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조평통은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6·15 공동선언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 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며 “북과 남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북한, 9일 개성서 남북 당국 실무접촉 제의(6/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우리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당국 실무접촉을 먼저 갖자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당국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즉시 받아들인

것을 평가한다”면서 “수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불신이 극도에 이른 현 조건을 고려해 남측이 제기한 장관급 회담에 앞서 그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함.

● 남북 ‘장관급회담 12일 서울 개최’ 합의…문안 조율중(종합)(6/9, 연합뉴스)

- 남북 양측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합의서 문안 조율작업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남북 양측이 다 12일 장관급 회담을 한다는 걸 기본 사안으로 깔고서 의제 설정 문제, 대표단의 규모나 체류일정, 경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단 서로 합의서 문안을 주고받았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남 당국자들의 ‘남북관계 국제화(개성공단 국제화·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발언은 “북남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흡수통일을 위한 것”라고 비난 및 ‘우리민족끼리’ 강조(6.4, 중통)
-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대담(6.7), 南 정부가 제의한 ‘남북 장관급회담(6.12, 서울)’ 前 사전 ‘남북 당국 실무접촉(6.9, 개성)’ 제의(6.7, 중통·중·평방)
 - 남측이 제기한 장관급회담에 앞서 그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며, 9일 개성에서 북남 당국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7일 14시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가동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남측의 대답을 보내기 바람.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10-6.16

6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양 체육시설 시찰…장성택 수행(6/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에 새로 건설된 평양국제축구 학교와 능라인민체육공원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학교가 축구선수 후진을 양성하는 전문체육학교인 것만큼 과학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교육해야 한다면서 “이 학교에서는 국제경기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축구선수 후비(후진)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라며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라”고 지시함.

- **北 노동신문, ‘마식령 속도’ 정신 대대적 선전(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1면 사설과 2면 정론은 물론 3, 4면에 이르는 각종 기사에서 ‘마식령 군인 건설자의 투쟁정신’과 ‘마식령 속도’를 거듭 강조함.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곡식을 정성껏 가꾸자’라는 제목의 사설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마식령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2면 ‘진취적인 일군이 되자’라는 제목의 ‘정론’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서 발휘되고 있는 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자는 우리 당의 의도와 결심을 깊이 새겨” 각 단위에서 정해진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는 ‘진취적인 일군’이 돼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대장 진급(6/1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0일 발표한 ‘최고사령관 명령 36호’에서 “인민보안기관과 인민내무군은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혁명의 쌓기등을 이루는 2대 무장집단”이라며 최 부장에게 대장 군사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전함.

● 北 김정은, 평안북도 유리공장 현지지도(6/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의 대관유리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대관유리공장에서 광학측정기재의 성능이 작년보다 좋아졌다고 격려하고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자동화를 실현하고 설비와 재료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6·25 때 김일성 머물던 곳 찾아(6/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 창성군 유평리에 있는 ‘유평혁명사적지’를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사적지를 방문해 “창성 땅은 수령님(김일성)의 전승 업적과 관련한 뜻 깊은 사적이 많은 곳”이라며 “올해는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체결·1950년 7월27일) 60돌이 되는 해인데 꼭 오고 싶었다”고 말함.

■ 김정은동향

- 6/10,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능라인민체육공원 시찰(6.10,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장성택·리영수·박춘홍 등 동행
- 6/12,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기념관 건설 지원자들인 인민대학습당 연구사 ‘최성실’ 등에게 감사 전달(6.12,중방)
- 6/14, 김정은 黨 제1비서, 6.13 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창성식료공장·창성각·창성국수집·은덕원·창성혁명사적관 등) 현지지도(6.14,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최휘·박태성·리만건(평안북도黨 책임비서) 동행 및 김철웅(창성군黨 책임비서) 등 현지 영접
- 6/15, 김정은 黨 제1비서,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6.15,중통·중·평방)
 - 최룡해, 최휘, 박태성, 홍영철, 리만건(평안북도위 책임비서) 등 동행
- 6/16, 김정은 黨 제1비서,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6.16,중통·중방)
 - 최룡해, 최휘, 박태성, 홍영철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여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세포등판 개간 전투장 현지 요해(6.10,중통·중방)
- 대성산종합병원에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친필현판’ 설치 준공식, 6.10 최룡해(軍총정치국장)·전창복(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참가하 진행(6.10,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6.12), '금수산태양궁전 꾸리기 사업에 기여한 5,544 명의 군인·일꾼·근로자·청년학생들'에게 '김일성 훈장' 등 표창(6.12, 중통)
- '김정은 호소문(6.4,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지) 과업관철' 위한 세포등판(※강원도) 군인건설자·돌격대원들의 군민(※軍民)대회, 6.13 현지 진행(6.13, 중방·평방)
 - 박봉주(내각 총리)·장정남(인민무력부장)·김기남·곽범기(黨 비서)·리병삼(인민내무군 정치국장)·로두철·리무영·리철만(내각 부총리)·리용수(黨 부장) 등 참석
- 박봉주 내각 총리, 양강도축곡경기장과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 요해(6.13, 중통)

나. 경제

● 금강산특구 대규모 개발 곧 시행(6/11, 연합뉴스; 금수강산)

-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의 오충혁 사장이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 '금수강산' 6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금강산특구의 개발 계획에 대해 “금강산관광특구지역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 관광 대상들을 건설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입수·보도함.
- 오 사장은 “이제 가까운 앞날에 특구 전체 영역에 대한 개발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국제관광특구로서의 면모가 훌륭히 갖추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또 외국의 법인 및 개인은 물론 남측과 해외동포가 금강산특구의 투자개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강조함.

● 北 “도로 설비·자재 국제경쟁 입찰로 조달”(6/11, 연합뉴스)

-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는 지난달 29일 게재한 경제 관련 소식에서 평양과 평안남도 평성 사이에 새 도로가 건설된다고 하며 “이와 관련해 국토환경보호성은 새 도로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내나라는 국토환경보호성이 조달할 유압굴착기, 버스, 시멘트, 변압기 등 50여 종의 설비와 자재를 열거하고 올해 7월 초 입찰초청장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도로 건설의 기술지도와 관련한 국제자문 봉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박봉주(내각총리), 6.11 함경남도 '덕성광산과 금야청년탄광' 현지 요해(6.11, 중통·중방)

다. 군사

● 北, 軍부총참모장에 주동철 임명(6/13,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장성 주동철이 군 부총참모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대규모 축산기지가 건설되는 강원도 세포등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호소문을 관철하기 위한 군민대회가 열렸으며 토론자 가운데 주동철을 부총참모장으로 소개했다며 이같이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병 없어”(6/11,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달 22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낸 보고서에서 “새로운 AI 발병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北 집단체조 ‘아리랑’ 내달 22일 시작(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이 오는 7월 22일부터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중앙통신은 아리랑 공연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담게 된다고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며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 의지와 전투적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2 대외 관계

가. 일반

- **中지린성, 투먼 北전용공단 대기업 입주 추진(6/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지린(吉林)성이 북한과 접경한 투먼(圖們)시에 조성한 ‘조선(북한) 공업원구’에 중국의 유명 대기업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지린성 경제기술합작국은 국제합작시범구 중점사업을 공개하면서 조선 공업원구를 첨단 정보통신(IT), 전자, 애니메이션 산업단지로 중점 개발하고 이곳에 중국의 유명 가전업체인 칸지아 그룹과 하이얼 그룹의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미국 상원 ‘5년간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안 통과(6/11,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Farm Bill)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이 처리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오는 2018년까지 5년 한시법인 이 법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가 법제화됨.
 - 이 법안 제3015조(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는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웨이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北, 재미 한인에 이산가족 상봉 허용(6/12, 미국의 소리(VOA))**
 - 미국 서부의 한인 실향민 단체인 ‘북가주이북5도민연합회’ 백형기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고 12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함.

- **유럽 기업인들 ‘투자처 물색’ 위해 9월 방북(6/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대북투자 자문 전문업체인 네덜란드의 ‘GPI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가 유럽의 기업인들이 북한 내 투자처를 물색해보기 위해 오는 9월 방북한다면 방북단은 9월 23~28일 북한의 산업 현장을 둘러본 뒤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사업의 장단점과 실무절차를 주제로 학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北, 러 아무르주와 경제협력 확대 협정 체결(6/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7일 올렉 코제마코 아무르 주지사와 림청일 신임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아무르 주정부 청사에서 무역, 임업, 농업, 건설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인터넷 판매(6/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공식 해외 웹사이트(www.mansudaeartstudio.com)’를 통해 외국에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러시아-북한 철도 통합배차센터 설치키로(6/14, 연합뉴스)**
 - 러시아 철도공사 공보실이 13일(현지시간) 언론보도문을 통해 자국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북한 구간 한반도중단철도(TKR)의 열차 운행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통합 배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양측의 합의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전길수 북한 철도상과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과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고 공보실은 설명했다. 양측은 또 열차 운행 지침과 운행 일정도 함께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일본 유족 10여명, 15일 가족 묘 성묘차 방북(6/14, 산케이신문)**
 - 북한에 가족의 유골이 있는 일본인들이 15일 성묘차 방북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14일 보도함.

- 구마모토(熊本)·가고시마(鹿兒島)현에 사는 일본인 유족 10여명은 14일 베이징을 거쳐 15~25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

● **주중 北대사관, 김정일 방중 30주년 연회 개최(6/14, 조선중앙통신)**

-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방중 30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이던 1983년 6월 1~13일 중국을 처음 방문해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를 만남.
- 연회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와 중국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리우젠민 외교부 부부장 등이 참석함.

● **北 김정은 “북중친선 발전에 확고한 의지”(6/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5일 60회 생일을 맞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형제적 중국 인민이 중국 공산당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힘.
- 이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견지에서 대를 이어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함.

● **중국, 훈춘에 출입국사무소 설립…북한관광 확대(6/15, 신문화보(新文化報))**

-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북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지린성의 유력 일간지인 신문화보(新文化報)가 16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 8일 훈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으며 공안부가 이르면 1~2개월 안에 사무소 설립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함.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은 '6.25전쟁 도발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책임 전가 및 韓美의 매해 '한국전 기념'은 '국제 무대에서 北을 전쟁을 도발한 범인으로 몰아보려는데 있다'고 왜곡 주장(6.10, 중통·노동신문)
- [중통 논평] 日 방위상의 對北발언(북조선의 핵 및 미사일개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관련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대국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며 '군국화책동을 합리화해 보려는 술책'이라고 비난(6.11, 중통)
- 김정일의 첫 방중('83.6.1~13) 30돌 관련 '세대를 이어 북-중 친선 불변 등 업적 칭송 및 兩國 친선유대 강화발전 노력' 지속 강조(6.13, 중통·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최룡해, 시진핑에 '北 핵보유국' 인정 요구(6/1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직접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한·중 군사외교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소식통은 16일 “지난달 방중한 최룡해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힘.

● 北, 美에 고위급회담 제안…비핵화 의지 피력(종합2보)(6/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국방위 대변인이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조(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3 대남 동향

- **북한도 남북 실무접촉 결과 신속 보도(6/10,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 발표문이 발표된 직후인 10일 오전 3시50분께 ‘북남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진행’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 개최’ 등 주요 합의 내용을 즉각 전했다. 조선중앙방송도 오전 6시께 ‘북남당국회담 실무접촉 발표문’ 전문을 공개함.
 - 북한 매체들은 회담 의제 및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 남북 간 이견이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발표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실무접촉 발표문’이라며 북측 발표문만 보도함.
 - 북측 발표문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명시함.

- **수석대표 ‘격’ 대립…남북당국회담 무산(6/11, 연합뉴스)**
 - 남북 양측이 11일 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대립하던 끝에 타협에 실패,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회담이 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회담 무산 사실을 발표함.
 - 우리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 명단을 이날 교환했으며, 남측은 대표단에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이수영 교류협력국장 등을,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국장, 김성해 조평통 부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권영훈 등을 대표단에,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보장성원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짐.

● **北 “남북대화 분위기 위해 6·15행사 열어야”(6/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북한이 제의한 6·15공동선언 행사와 7·4 공동성명 기념 문제가 잘 풀린다면 남북대화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12일 ‘대화 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현실적 문제’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우리의 주동적 대화제의를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그를 위한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조평통 “당국회담 무산 南 책임… 회담에 미련 없어”(6/13,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당국 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책동으로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며 “우리는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남측이 처음부터 장관급회담을 주장하고 실지로 통일부 장관을 내보낼 의향이라고 몇번이고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수석대표를 아래급으로 바꾸어 내놓는 놀음을 벌린 것은 북남 대화역사에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으로서 무례 무도의 극치”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통일전선부장이 회담대표단 단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무식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남 대화 역사가 수십년을 헤아리지만 지금까지 우리측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공식 당국 대화 마당에 단장으로 나간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함.

●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불통 장기화(종합)(6/14, 연합뉴스)**

- 통일부가 우리측 판문점 연락관이 14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께 북측 연락관에게 시험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에서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은 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12~13일에도 시험통화에 응하지 않아 사흘째 불통 상태가 계속됨.

● 北, 6·15 맞아 “북남관계 개선은 중대과업” 강조(6/15, 노동신문)

- 북한은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맞아 공동선언의 의미를 부각하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 신문은 15일 ‘6·15의 기치 높이 자주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6·15선언이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했다고 평가함.
- 이어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앞에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혼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르고 있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6·15공동행사 무산 비난…“반통일 범죄”(6/15, 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파탄 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6·15민족공동행사 무산을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자 용납 못 할 도전”이라며 “괴뢰패당의 반통일적 범죄를 해내의 전체 동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가 ‘남남갈등’을 우려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의 방북을 불허한 데 대해 “북남관계가 격폐돼 서로 만나지 못해야 갈등도 없어지고 통일문제도 논하지 말아야 저들도 편안하다는 극악무도한 분열의 논리”라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남북 실무접촉(6.9, 판문점 평화의 집) 관련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 및 ‘발표문 채택’ 보도(6.10,중통·중방)
- [중통 논평]남북 당국회담 무산책임을 “애초부터 이번 회담을 불순한 기도에 이용하려고 작정한 남조선 당국”이라고 역측 주장 및 우리 당국의 회담 입장(남북 수석대표 同級 요구 등) 왜곡 비난(6.13,중통)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총대변인 성명(6.15)】 ‘6.15민족공동행사가 南 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며 ‘이것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부정이며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주장(6.15,중통·중방)

6.17-6.23

6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기계공장 시찰…“현대적 기계 생산” 독려(6/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현실에서 큰 은(보람있는 결과)을 나타내며 사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는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며 “자재보장 대책을 바로세우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 히틀러 ‘나의 투쟁’ 고위간부에 선물(6/18, 워싱턴포스트(WP))**
 -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탈북자들이 만드는 북한 관련 뉴스매체인 ‘뉴 포커스’를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생일인 1월 8일을 맞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급 간부들에게 하사한 선물 가운데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생일 선물로 ‘나의 투쟁’을 택한 이유는 나치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추진한 경제, 군사적 재건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 “경제·핵 건설 병진에 黨사업 집중해야”(6/18, 연합뉴스)**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최태복 비서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의 노동당 사업 시작 49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관철에 당사업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최 비서는 “인민군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서의 생산성과를 촉구하며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며 우주정복의 성과를 확대해 우리 힘으로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비행사를 하늘의 결사대로 준비시키라”(6/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항공·반항공군 제 1017부대의 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휘소에서 조종사들의 이착륙·공중전투 훈련 등을 참관하며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해 비행사(조종사)들을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시키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협동농장 첫 시찰…온실 채소생산 독려(6/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송학협동농장 채소온실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온실을 둘러보며 “중앙에서 도, 시, 군들에 건설할 표준화된 온실 설계를 내려보내주며 도, 시, 군들 사이의 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평가) 대책도 따라세워야 한다”며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 지도서를 만들어 모든 온실에 보급하며 온실들에서는 그에 맞게 남새 재배를 과학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마식령스키장 건설 총력…“유럽 전문가도 방문”(6/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마식령 스키장 건설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글에서 “얼마전 건설장을 찾았던 유럽의 전문가들은 스키장 건설이 올해 안으로 완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정말 해낼 수 있는가하고 거듭거듭 물었다” 전함.
 - 신문은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는 방대한 대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다는 사실이 그들(유럽 전문가들)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고 밝힘.

- **북한TV, 탈북청소년 좌담회 방영…‘말끔한 모습’(6/21,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20일 진행된 탈북 청소년들의 좌담회를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약 26분간 녹화 중계함.
 - 탈북 청소년 9명은 여성 사회자의 요청으로 북한에서 중국 단둥으로 가게 된 과정과 라오스 생활 등을 차분하게 설명함.

- **北 김정은, 자강도 군수공장 현지지도(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강도 강계뜨락포르(트랙터)종합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이 우리나라 기계제작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공장을 대단히 중시했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애정이 각별했다고 말함.
 - 또한 이 공장이 혁명사적관을 잘 만들어 교양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며칠 전에 돌아보며 비판한 공장과는 완전히 대조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기계공장 시찰…“국제 동향 파악 습득하라”(6/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을 현지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에서 가장 먼저 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며 “강계정밀기계공장은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손길 아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강한 공장으로 됐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생산에서 양적 지표 못지않게 질 보장 문제가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발전된 정밀기계의 기술적 지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것을 압도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지적함.

김정은동향

- 6/17, 김정은 黨 제1비서,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6.17,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최휘·박태성·홍영칠·손철주·윤동현 동행
- 6/19,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오중흠7연대 칭호 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6.19,중통·중방)
 - 최룡해, 윤동현, 홍영칠 동행 및 리병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현지영접
- 6/20, 김정은 黨 제1비서, 안주시(平南)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6.20,중통·중방·평방)
 - 최룡해·박태성·김영남(평안남도黨 비서) 동행
- 6/22, 김정은 黨 제1비서, 강계뜨락포르종합공장 현지지도(6.22,중통)
 - 최룡해, 박태성, 강관일, 황병서, 홍영칠, 윤동현, 박정천, 김택구, 류영섭(자강도 당책) 동행
- 6/23, 김정은 黨 제1비서,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6.23,중통·중·평방)
 - 최룡해·박태성·강관일·황병서·홍영칠·윤동현·박정천·김택구·류영섭(자강도黨 책임 비서)·김춘섭(道黨 비서)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현지 요해(6.19, 중방·중통)

나. 경제

● 北, 올해부터 林農복합경영 지역 확대(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환경과 식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임업·농업 복합경영을 올해부터 전역에 본격 도입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북한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국토환경보호교류사의 김광주 상급고문은 ‘사막화 저지를 위한 세계의 날’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임농 복합경영 방법이 각지에 도입된다며 이 기술 도입으로 현재까지 10만 정보의 산림 면적이 늘어났다고 밝힘.

다. 군사

● 北, 신형탱크 900여대 전력화...‘선군호’ 개발 첫 확인(6/20, 연합뉴스)

- 군의 한 소식통이 “북한군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신형 전차 900여 대를 전력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우리 육군이 전력화한 전차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추가 배치된 북한군의 신형 전차는 ‘선군호’, ‘천마호’(천마5호)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번에 개발 및 전력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선군호’는 기존 전차 포탑을 개량해 사거리가 길고 전차 속도도 시속 70km가량으로 기동력이 뛰어나 우리 기갑부대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기타 (대내 군사)

- 北 인민무력부, 6.20 반미공동투쟁월간(6.25~27) 즈음 駐北 무관단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6.20, 중통·중방)

라. 사회·문화

- **북한도 ‘장마주의보’…“미리 수해대책 세워라”(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1면에 실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미리 막고 생산과 건설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산업시설과 건물, 원료와 연료, 설비와 자재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장마철에도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며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며 생산 현장별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함.

- **北 영유아, 만성 영양불량 상태…1990년대보단 개선(6/21,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1990년대 후반보다는 향상됐으나 여전히 만성 영양불량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이수경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2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영양 및 2013년 식량 상황 토론회’에서 유엔기구의 2012 북한 영양 상태 보고서를 분석, 이같이 밝힘.

- **북한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종합)(6/23, 연합뉴스)**
 - 북한의 개성 일대에 집중된 고려시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유네스코는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계속된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북한이 등재 신청한 개성역사유적지구를 심사한 결과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함.

- **北 “지방 설치 경제개발구서 토지 최고 50년간 임대”(6/23, 연합뉴스; 통일신보)**
 - 북한이 앞으로 지방에 설치할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뉴스가 23일 확인한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6월 15일자)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정한 경제개발 구법 전문에서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밝힘.

2 대외 관계

가. 일반

● 북한 식량부족, 더는 위기상황 아닌 듯(6/17, 연합뉴스)

-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초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많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3년 중반 현재,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부족 현상은 위기상황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보고서는 다만 “식량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부족과 성장 지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계획의 하나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제안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방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김계관 19일 中외교부부장과 회담(6/17,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는 19일 베이징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수석)부부장과 양국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화 대변인은 “이번 전략대화 진행은 양국 사이의 밀접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쌍방은 양자 관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을 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깊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함.

- **몽골 에너지기업, 북한 정유회사 지분 인수(6/17, 연합뉴스)**
 -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석유회사 'HB오일 JSC'는 17일 북한 정부 소유의 정유회사인 '승리'(Sungri)의 지분 2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김영남, 로하니 이란 신임 대통령에 축전(6/18,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하산 로하니 신임 이란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문을 보내 양국간의 지속적인 친선·협력을 강조했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에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함.

- **시진핑, 北 김정은에 답전…“한반도 평화 공동 수호”(6/18,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8일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축전에 답전을 보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시 주석은 “나는 중조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친선을 중시하고 전략적인 높이와 전망적인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틀어쥐고 나가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선 당과 정부와 함께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방침에 따라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며 친선적으로 협조해 중조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밝힘.

- **어나니머스, 北 미사일 문서 25일 공개 시사(6/19, 연합뉴스)**
 -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오는 25일로 예고한 북한 인터넷망 공격을 앞두고 유튜브 동영상상 통해 북한 내부의 군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어나니머스는 지난 17일 유튜브에 'Anonymous North Korea'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북한의 주요 미사일 문서와 주민문서, 군 관련 문서는 이미 훤히 내려다보인다”며 “이것을 세계에 일부만 공개할 것”이라

면서 “당신들이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6월25일을 기해 당신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함.

- **스위스, 북한 임농복합경영에 96만 달러 지원(6/2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임농복합경영’ 사업에 스위스 정부기구인 스위스개발협력처(SDC)가 향후 2년간 96만달러(약 11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유엔 “전세계 탈북 난민 1천 100명”(6/21, 미국의소리(VOA))**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9일 발표한 ‘2012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가 전 세계적으로 1천 110명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방송은 유엔난민기구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외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외국에 사는 탈북자 수가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 **신선호 北유엔대사 기자회견 발언문 요약(6/21, 연합뉴스)**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조선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밝힘.
 - 전날 갑자기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거부하면 정세는 계속 격화될 것이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신 대사는 회견이 끝나고 브리핑룸에서 나가면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남한 측에서 무산된 남북대화와의 관련해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재개될 수 없다”고 말함.

- **北여성,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선출(종합)(6/22, 연합뉴스)**
 - 북한 여성 체육인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연합뉴스가 22일 입수한 북한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6월1일자)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FC 총회에서 북한의 한은경이 집행위원으로 뽑힘.

- **어나니머스 “예고대로 25일 정오 북한 사이트 공격”(종합2보)**
 -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의 일원이라고 밝힌 해커가 6·25 전쟁 발발일에 맞춰 예고대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어나니머스의 공격을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어나니머스 소속이라고 밝힌 한 해커(트위터 ID : @Anonsj)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한글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예고했던 것처럼 이달 25일 낮 12시(그리니치표준시 3시)에 북한이 운영하는 조선중앙통신, 구국전선 등 46개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北-中, 6.19 베이징에서 ‘외교부문 전략대화’ 진행 및 ‘친선협조관계 더욱 발전 및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의견교환’ 보도(6.19,중통·중방)
- 유엔의 일본 정부에 ‘하시모토’(유신회 공동대표) 발언(일본군 성노예 필요) ‘시정 권고’ 강조 및 “역사왜곡과 미화분식은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며, 일본의 우익화·반동화의 길로 줄달음” 우려 (6.19,중통·민주조선)
- 김계관 北 외무성 제1부상, 6.21 중국 ‘양제츠’ 국무위원 및 ‘왕이’ 외교부장과 각각 면담 및 6.22 귀환(6.22,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없는 세계’ 내세우며 미국 핵정책 비난(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의 핵무기 감축 및 폐기를 주창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핵무기 없는 세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미국의 ‘안하무인’적인 핵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것은 미국에 의해 핵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함.

● 반기문 “어떤 북미대화도 한반도 비핵화가 초점”(6/18, 연합뉴스)

- 에두아르도 텔 부에이 유엔 부대변인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김계관 “6자회담 등 대화로 핵해결 원해”(6/1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 제1부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진행된 북중 외교 당국 간 첫 전략대화에서 “조선(북한)은 유관 당사국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제1부상과 전략 대화에 나선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유엔, ‘핵실험’ 北 기관4곳·개인8명 추가 제재 논의(6/20, 연합뉴스)

- 유엔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기관 4곳과 개인 8명을 추가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장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대사)는 산하 전문가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을 내주 공개하고 이르면 7월 제재 확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제재대상자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유출 등에 관련된 외국인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중국과기대, 북한 3차 핵실험 지점·위력 확정(6/20, 중국신문사)**
 - 중국의 과학 분야 최고 학술기관인 국립 중국과학원 부설 중국과학기술대가 북한이 지난 2월 감행한 제3차 핵실험의 지점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북위 41도 17분 26.88초, 동경 129도 4분 34.68초로 확정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0일 보도함.
 - 또한 중국과기대 지진실험실 연구팀은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2.2kt으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의 위력(16kt)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함.

- **중국, 6자회담 당사국에 “대화·접촉 시급하다”(6/20,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현재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화 대변인은 “최근 반도에 나타난 긴장 완화 분위기는 각 당사국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관련국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며 당사국들이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소중히 여겨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촉구함.

-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9개뿐(6/21,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7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결의안 2094호는 채택 이후 90일(6월 5일) 안으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결의안 2094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벨기에, 그리스, 카타르 등 9개국에 불과함.

- **北 김계관, 방중 마치고 귀환(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22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또 김 제1부상이 방중 기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각각 만났다고 밝혔으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전하지 않음.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라오스 탈북자 18명 입국 비난…“주범은 청와대”(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라오스에서 탈북자 18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사실을 비난하면서 “유인납치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청와대와 현지 괴뢰(한국) 대사관까지 가담해 감행된 이번 납치행위는 우리에게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그들에게는 북남관계 개선의사가 조금도 없고 대결적 흥심만 팍 들어차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밝힘.
- **南 당국은 화해·통일의 길로 나와야(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민족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민족단합을 강조하며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북남 당국 대화가 파탄된 것은 남조선당국이 민족을 위한 입장에 서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 북남관계 발전을 저애(방해)할 것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힘.
- **北 대남실세 김완수, 6·15북측위원장에 선출(6/18, 민족통신)**
 -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은 18일 “6·15 북측위는 15일 총회를 진행해 김완수 조국전선 서기국장을 6·15 북측위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고 밝힘.

- **北 “최고존엄·체제 비방 탈북자 제거할 것” 위협(6/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청에 해당)는 특별담화에서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인민보안부는 “이자들(탈북자들)을 내세워 우리에게 대한 모략선전과 비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 악질적인 보수 언론매체들도 무자비한 정의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송 탈북 청소년 좌담회로 첫 공개활동(6/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라오스에서 자국으로 송환된 탈북 청소년을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행위로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고려동포회관에서 열린 좌담회 내용을 전함.
 - 통신은 이 청소년들이 “구렁텅이에 영영 빠질뻔한 자기들을 한 품에 안아 밝은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진정 자애로운 태양의 품”이라면서 납치에서 벗어나 조국의 품에 안긴 소감을 밝혔다고 전함.

- **北, 6·25 앞두고 ‘미국의 전쟁 책임’ 집중 부각(6/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조선전쟁 비화-전쟁도발자의 정체를 밝가본다(1)’는 글에서 미국이 6·25전쟁 발발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해방 이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려고 남한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 등을 언급하고 “미국은 1945년 9월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전 조선을 지배할 야망 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계획적으로 세밀히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함.

- **통일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여전히 유효”(종합)(6/21, 연합뉴스)**
 - 정부는 21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해 둔 실무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北매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거둬 요구(6/2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중대 결단’ 기자회견과 관련, 정부에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라고 거둬 요구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자회견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개성공업지구 방문에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또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남조선 기업가들의 설비점검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비롯해 앞으로 공업지구가 정상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南北종교인 베이징 회동…北측 “대화 재개 희망”(6/18, 연합뉴스)**

- 북한 종교계 인사들이 최근 우리 측 종교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종교단체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KCR) 장재언 회장 등 KCR 인사들을 만난 국내 7대 종단 종교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변진홍 사무총장은 북측 인사들도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북측이 남북 간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려는 뜻은 확고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대통령께서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6.17)시 ‘한국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약 70%가 북침이라고)’발언 관련 ‘미국의 무력침공을 합리화하려는 또 하나의 민족반역행위’, ‘외세의존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동’이라며 ‘북침전쟁이었다’고 왜곡 주장(6.20,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24-6.30

6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자강도 노동자들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6/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강도 강계트랙터종합공장 체육관에 모란봉악단을 불러 노동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태성·황병서 노동당 부부장, 윤동현·김택구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강관일, 홍영철과 류영섭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함께함.

- **北, 6·25 맞아 對美 복수·병진노선 다짐(6/2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25일에 박봉주 총리, 김기남·최태복·김양진·문경덕·곽범기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로두철 부총리 등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보도함.
 - 연설에 나선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반미 전면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 있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가공직장, 열처리직장, 조립직장 등 공장 여러 곳을 돌아 보고 설비 현대화 상태와 생산 상황을 점검함.
 - 또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한 것이 마음에 든다”며 “공장에서 맡겨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면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치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함흥시 기계공장 잇달아 시찰(6/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제1위원장이 1969년 건립된 함흥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 조립직장, 가공직장 등 여러 곳을 둘러보며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품 개발과 생산에서 지난 시기의 기준과 대담하게 결별해야 한다”며 “하나의 기계 제품을 생산해도 세계적으로 발전된 기계 제품들의 성능과 기술적 지표들을 압도할 수 있게 만들고 다목적, 다기능 설비로 완성하며 국산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동향

- 6/24, 김정은 黨 제1비서, 자강도 노동계급들과 모란봉악단 공연(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체육관) 관람(6.24,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박태성, 강관일, 황병서, 홍영철, 윤동현, 박정천, 김택구, 류영섭(자강도 당책)
- 6/24, 김정은 黨 제1비서, 장자강공작기계공장 현지지도(6.24,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박태성, 강관일, 황병서, 홍영철, 윤동현, 박정천, 김택구 동행
- 6/29, 김정은 黨 제1비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 현지지도(6.29,중통·중·평방)
 - 박태성, 황병서, 홍영철, 윤동현 동행
 - 림광철·리장미 군관 부부, 6.18 김정은에게 ‘감사 편지’(아들의 무료 심장수술 소생, 사회주의 보건의제도 혜택 찬양) 전달(6.28,중통·중방)
- 6/30, 김정은 黨 제1비서, 신흥기계공장(1969.10.29.창립) 현지지도(6.30,중통·중·평방)
 - 최룡해, 박태성, 황병서, 홍영철, 윤동현, 박정천, 주도현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검덕지구 대흥청년영웅광산 등 여러 곳 생산정형과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현지요해(6.24,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미림 승마구락부·문수물놀이장 건설정형 현지 요해(6.25,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평안북도 ‘봉화화학공장·양책베어링공장·염주군 내중협동농장’ 현지요해(6.29,중통·중방)

나. 군사

- 北노동신문 “軍民협동작전은 병진노선 관철 원동력”(6/28,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군민협동작전으로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혁명적 단결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군민협동작전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군민협동작전을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 서로 협조하고 보조를 맞추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여 최상의 성과와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라고 규정함.

- 北 강원도 최전방지역 개발 이유…체제 과시용(?) (6/30, 연합뉴스)
 - 북한이 휴전선에 인접한 강원도 세포등관 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체제 선전의 목적까지 내비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6월 13일 군민대회에서 낭독된 ‘세포등관 개간 전투원들이 전국 근로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군사분계선 너머의 목장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세포등관에서 기어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함.

다. 사회·문화

- 북한 선수 3명, 아시아역도선수권서 금메달(6/23, 평양방송)
 - 작년 런던올림픽의 역도 메달리스트인 북한의 김은국, 엄윤철, 량춘화 선수가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평양방송이 23일 보도함.

- 北, 아시아역도선수권서 또 금메달…국가별 순위 1위(6/25, 조선중앙통신)
 - 201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69kg급 경기에 출전한 북한 러은희 선수가 인상 118kg, 용상 145kg의 기록으로 각각 1위, 합계 1위에 올라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북한 대학생들, 인터넷상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서 1위(6/28, 노동신문)**
 - 북한 대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열린 인도 국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코드쉐프’(CODECHEF)에서 1등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전함.
 - 신문은 코드쉐프 대회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경진대회 가운데서 규모가 비교적 크고 높은 급의 정보기술분야 경연이라며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연에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고 권위있는 프로그램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참가해 각국의 지적잠재력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경연으로 주목된다”고 소개함.

- **북한 예술인들, 러시아 콩쿠르서 잇달아 입상(6/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예술인들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음악 콩쿠르에 잇달아 입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전함.
 -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예술 콩쿠르에 참가한 북한의 인민내무군 협주단 소속 백성혁과 송경업이 기악 앙상블 부문에서 특등을, 바얀과 아코디언(손풍금) 독주 부문에서 각각 1등을 함.
 -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25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평양음악학원 교원인 박현철도 바얀과 아코디언 독주 부문에서 2등을 차지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개성시 역사 유적들(왕건왕릉·공민왕릉·개성남대문·개성성·송양서원·표충비·선죽교·고려성군관·만월대·개성첨성대·칠릉떼·명릉떼), 세계문화유산 등록 결정(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 보도(6.24,중통)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영화대학-中 영화학원 자매결연(6/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베이징발로 보도로 “평양연극영화대학과 베이징영화학원 사이의 친선대학 관계설정에 관한 합의서가 24일 베이징에서 조인됐다”며 김응진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장과 장후이쥘(張會軍) 베이징영화학원 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 **中 지린성, 북한서 위탁가공 의류 국내산 간주(6/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지린성 검험검역국은 최근 원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해 가공한 의류를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해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북한 올해 쌀 생산량 5.6% 감소 전망(6/25, 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식량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 예상치는 지난해 생산량인 180만t보다 10만t(5.6%) 줄어든 170만t이라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유엔, “북한 외교관 불법 거래 경계” 촉구(6/25, 연합뉴스)**
 - 유엔이 24일 핵물질이나 금수품목의 밀거래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과 관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보고서는 “북한 대사관이나 상주 공관, 무역사무소 등이 있는 나라는 북한 외교관과 관리들을 특히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와 오스트리아, 콩고공화국 같은 나라에서 북한 관리들이 기밀 정보수집이나 무기 금수 조치 위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회원국의 주의를 당부함.

- **어나니머스 공격 주장 北사이트 일부 접속 불가(6/25, 연합뉴스)**
 - 25일 오전 10시까지 접속되던 북한 웹사이트들은 어나니머스 일원을 자처하는 한 해커(트위터ID:@Anonsj)가 해당 사이트의 ‘탱고다운’(Tango Down: 해커들이 특정사이트를 마비시켰을 때 쓰는 용어)을 주장한 직후부터 접속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해커가 해킹했다고 주장한 북한의 웹사이트인 노동신문, 내나라, 고려항공,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벗, 류경, 려명 등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속되지 않음.
- **北 ‘열병식 공개 TEL차량’ 대당 56억원에 중서 수입(6/25,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4월 열병식에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차량을 대당 3천만위안(56억원 가량)을 주고 중국 회사에서 수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사용 목적을 속이고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이 차량을 수입한 뒤 개조한 것으로 최종 판단함.
- **北 고려항공, 평양-말레이시아 노선 8월 재개(6/26, 말레이시아 리저브)**
 - 말레이시아 일간지 ‘말레이시아 리저브’는 26일 고려항공이 올해 8월 4일부터 평양~쿠알라룸푸르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고 이 노선에 러시아제 투폴레프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중국 지린성, 북한관광 통행증 발급지 확대(6/26, 중국신문사)**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인의 북한관광에 필요한 통행증을 발급하는 지역의 수를 통화(通化), 바이산(白山), 옌벤(延邊) 등으로 늘리고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도 북한 출입국통행증을 정식으로 발급한다고 중국신문사가 26일 보도함.
- **北교육기금에 국제사회 후원 이어져(6/26, 연합뉴스)**
 -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독일,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의 10여 개 단체에서 ‘조선교육후원기금’에 각종 자재와 지원금을 후원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조선교육후원기금 홈페이지를 인용해 보도함.

- **WFP, 대북식량지원 지역 3곳 추가(6/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달 1일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함.
 - 이번 조치는 WFP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240만 명에 대한 새로운 식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며, 양강도 갑산군과 강원도 세포군 등이 추가됨에 따라 WFP가 북한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지역은 기존 82개 시·군에서 85개로 늘어남.

- **유엔 대북제재위에 해상 전문가 총원(6/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해상교통 전문가 닐 와츠씨를 대북제재 전문가로 공식 발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단을 8명으로 늘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내달 첫 회의…본격 활동(6/28, 미국의소리(VOA))**
 -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조사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고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방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피 전 호주 대법관, 소냐 비셰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등 북한 인권조사위원 3명과 지원팀이 다음달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힘.

- **北 박의춘, 브루나이 도착…내일 중국과 양자회담(종합)(6/30, 연합뉴스)**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낮 브루나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박 외무상 외에 국제기구국의 리홍식 국장 등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브루나이 대사도 겸임하는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도 박 외무상을 수행할 예정임.

기타 (대외 일반)

- 유엔 주재 北 대사, 6.21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 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한반도와 亞-太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6.26, 중통·중방)
- [중통 논평] 美해병대기지의 대부분이 日 오키나와에 집중 전개되어 있는 것 관련 '이 지역에서 군사적 지배권을 유지·강화하여 잠재적 적수들을 견제하고 세계 제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6.26,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미국, 북한과 고위급 양자접촉 방침(6/25, 아사히신문)

-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고위급 양자접촉을 갖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함.
- 신문은 북미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접촉방법과 관련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이 제3국에서 회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시기는 최근 성사직전 무산된 남북대화가 실현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 케리 美국무 “北 핵보유국 불인정…중국 역할 기대”(6/26, 미국의 소리(VOA))

- 케리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오늘날 진정한 의미에서 핵보유국이 되는 데 필요한 ‘핵무기를 목적지에 도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그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으며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만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중국의 정책이기도 하다”며 “중국도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함.

● 北노동신문 “南, 주변국에 대북 핵 공조 청탁” 비난(6/30, 노동신문)

- 북한은 30일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에 이른바 ‘대

- 북 핵 공조를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이날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끝장내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대북 핵 공조’는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전혀 바라지 않고 있으며 핵문제를 구실로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3 대남 동향

● 신뢰프로세스, ‘비핵개방3000’보다 적대적(6/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본색’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박근혜 정권의 본색은 신뢰프로세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더 적대적이고 대결적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신뢰프로세스와 ‘비핵·개방·3000’의 공통점은 “핵포기와 개방을 요구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켜 변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는 점에서 “선임자의 것보다 더욱 적대적이고 대결적”이라고 밝힘.
- 또한 “박근혜 정권의 본색은 북을 자극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폐쇄로 몰아넣은 데 이어 북남 당국회담도 수석대표의 격이나 따지면서 회담 자체를 파탄시킨 데서 단적으로 증명됐다”며 “애초부터 북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함.

● 北, 6·25 맞아 “미국은 전쟁 도발 침략자” 주장(6/24, 연합뉴스)

- 북한이 6·25를 앞둔 24일 역사학회 비망록을 통해 “미국은 조선전쟁(6·25 전쟁)을 도발한 침략자”라며 “조선전쟁은 미국에 의해 발생한 민족분열과 동족대결의 비극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역사학회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60주년을 맞아 조선전쟁 도발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비망록을 발표한다”며 “조선전쟁은 미국이

전 조선을 타고 앓고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를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타산 밑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침략전쟁”이라고 평가함.

● 北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초미의 과제”(6/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1면에 게재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6·25전쟁을 미국이 남한을 사주해 도발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초미의 과제”라며 미국에 군사연습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함.
- 사설은 또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긴장완화와 평화,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며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차단봉을 내릴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함.

● 주중 북한대사관 6.25 사진전…‘남한의 북침’ 주장(6/25,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은 25일 정문 옆에 자리 잡은 대외용 선전 게시판에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을 대거 붙이고 6·25가 남한의 기습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전에 나섰다

● 北, ‘국정원 대선개입’ 비난…대화록 공개엔 침묵(6/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괴뢰정보원’이라는 글에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현 집권 세력이 권력기관을 불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시켜 근본적 영향을 줌으로써 보수 정권을 연장하고 유신 독재를 부활시킬 것을 노린 용납못할 정치깡패 행위”라고 주장함.
- 신문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과 합의하고서도 그에 대해 거부하면서 이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적극 여론화하면서 민심의 이목을 딛 대로 돌려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매체, 대북전단 살포시 “임진각 통째 날려보낼 것”(6/2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가 26일 탈북자단체와 국제인권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장소인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함.
 - 매체는 인민보안부가 이미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을 천명했다며 “징벌의 총구 앞에 처단 대상자들이 제 발로 몰려나와 과녁이 되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때마침”이라고 주장함.

- **北, 대화록 공개에 “최고존엄 우롱” 비난(6/2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7일 새벽에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뇌 상봉 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번 담화록 공개가 청와대의 현 당국자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전대미문의 정권 강탈음모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에 대한 각계층의 규탄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고 정권 위기를 수습하며 통일민주세력을 ‘중복’으로 몰아 거세말살하기 위해 수뇌상봉 담화록을 공개하는 망동으로 단말마적 발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또 “괴뢰보수패당이 말끝마다 ‘신뢰’요 뭐요 하지만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수뇌분들의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 무례무도한 자들이 그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라며 “도대체 (남측이 말하는) ‘수뇌상봉’, ‘정상외교’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밝힘.

- **北 “南의 김규식 등 ‘납북자’ 인정은 기만행위”(6/28,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가 최근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한 데 대해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명예회복위의 결정은 “조국해방전쟁(6·25 전쟁) 시기 정의와 진리를 찾아 공화국(북한)으로 의거한 통일애국 인사들을 ‘전시 납북자’로 조작하는 망동을 부린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따위 불순한 기도와 너절하고 파렴치한 기만행위는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함.

● **北, 전단살포에 또 위협…“임진각은 조준타격권”(6/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국내 탈북단체와 미국 인권단체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29일 “임진각이 서부전선사령부의 직접적인 조준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협함.
-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단체를 내세워 북한에 반대하는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힘.
- 서부전선사령부는 이어 남북당국회담 무산,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거론하며 “이번 뼈라 살포행위는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라고 주장함.

● **‘전쟁사적지 찾자’…北 정전 60주년 분위기 띄우기(6/3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정전협정 기념일인 다음 달 27일까지 한달 정도 남았지만 최근 북한 매체에서는 전쟁 사적지의 답사 소식이 잇달아 소개되고 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8일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을 맞아 6·25전쟁의 주요 전투장소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군인들의 답사 행군이 서부지구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6일 군인과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이 평안북도 창성군의 창골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소개함.

● 北, ‘김규식 등 6·25 납북자 인정’ 거듭 비난(6/30, 노동신문)

- 북한은 30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가 최근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한 것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명예회복위의 결정은 “(6·25 전쟁) 남침 설에 그 어떤 신빙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의 반(反)공화국 대결 공조와 북침전쟁 도발 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신문은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 명예회복위가 납북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스스로 월북한 인사들이라며 남한에서 말하는 납북자란 “허위와 날조로 조작된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6·25전쟁]63주년 즈음 현실은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한반도 긴장완화, 정전체제→평화체제 전환이 초미의 과제’라고 주장 및 ‘반미반전·미군철수와 6.15·10.4선언 이행투쟁’ 선동(6.25, 중방·노동신문·중통)
- [6·25전쟁]63주년 관련 ‘미국과 남한의 새 전쟁도발소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北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도발자들에게 추호의 자비를 모른다’고 위협(6.25, 중통·노동신문)
- [‘조평통’대변인 긴급성명(6.2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현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10.4선언을 공공연히 훼손하고 수뇌상봉까지도 정쟁의 농락물로 삼는 정치적 패륜무리, 정치깡패집단, 시정배들의 정치, 외교상식도 남북관계 윤리도 모르는 마구잡이정치’라고 맹비난 및 위협(6.27, 중통·중방·평방)
- ‘南北 당국회담’에 대한 통일부장관 특강발언(남북현안을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나오라고 한 것 등) 관련 ‘회담 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발광하는 추악한 몰골’이라고 지속 비난(6.26, 중통·노동신문·평방)
- 우리 정부의 ‘6·25전쟁 63주년 기념식(6.25, 잠실체육관)’과 ‘2013 호국퍼레이드(6.29 예정, 용산전쟁기념관→서울광장)’ 행사 진행 관련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우리(北)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동족대결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反攻화국광대극”이라고 비난(6.27, 중통·민주조선)

5·6월

북한동향 일지

<5월 일자>

보도일자	내용
5/2,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리설주와 함께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 관람
5/2,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인민보안부 방문 및 제2219군부대시찰
5/3,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인민군열사묘 건설장’ 현지요해
5/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인민극장에서 은하수음악회 관람
5/5, 중방·평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평양시 교외) 시찰
5/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에서 건설중인 여러 대상들 시찰
5/8,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전승’ 60돌 경축 공연준비 점검 및 창작가·예술인들 접견 격려
5/9, 중통	박봉주(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아 과학자·기술자 등 격려
5/10, 중통·중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은하수관현악단 지휘자(윤범주)에게 ‘인민예술가 칭호’ 수여
5/1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미얀마·몽골·시리아·파키스탄·에티오피아·우간다 대통령의 ‘김일성 생일’ 축전에 대해 ‘답전’ 발송
5/12, 중방	제39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 1단계 경기(5.17-24,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및 청년선수권대회 방상하기(5.15-18, 방상관) 진행 예정
5/1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리설주,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
5/1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영상작품 창작사업 지도
5/13,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
5/14,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 원호사업 기여자들(봉화비누공장·옥류결혼식 식당 일꾼과 종업원, 관문2동 축산작업반장 이영희 등)’에 ‘감사’ 전달
5/1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된 강태호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5/15, 중통·중방	김영일(黨비서), 日 아베내각 위기관리특별담당참여 ‘이지마 이사오’ 일행과 담화
5/16, 중통·중방	김영남, 만수대의사당에서 日 아베내각 위기관리 특별담당 참여 ‘이지마 이사오’ 일행과 면담
5/16,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및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현지요해
5/1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軍 2월20일 공장’ 현지지도
5/19,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용문술공장 현지지도
5/19,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
5/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평양시 묘향산등산소년단 야영소’ 시찰
5/21,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와 405군부대 시찰(중통·중방·평방)
5/22, 중통·중방	최룡해(총정치국장), 김정은 특사로 訪中

5/23, 중통·중방	박봉주 내각 총리,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건설정형 현지 요해
5/25, 중방	北,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
5/26,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軍 제639군부대관하 '동해후방기지' 및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 현지지도
5/2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마식령스키장 현지지도
5/27, 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해군 291군부대 시찰
5/27, 중통·중방·평방	박봉주(내각총리),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현지요해
5/28,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 현지지도
5/29, 중통·중방·평방	박봉주 내각 총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의 생산실태와 석성탄광 개건정형 현지 요해
5/30, 중통·중방·평방	능라인민체육공원 및 평양국제축구학교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
5/31,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및 청년야외극장 현지지도
5/3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보익(김일성 祖母) 생일(5.31) 137돌 즈음 만경대 '리보익 묘'에 화환 전달

<6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6/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마전해수욕장 및 인민軍 제1521호 기업소에 새로 건설한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 현지지도
6/2,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평양체육관과 인민문화궁전 개건공사장을 돌아보고 '회천발전소' 2단계(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정형 현지 요해
6/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성산 초소들과 제507군부대 시찰
6/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49군부대 돼지공장 현지지도
6/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
6/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올해 마식령스키장건설 완공' 독려 '호소문' 발표
6/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보성버섯공장 현지지도
6/6, 중방·중통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 김정은 黨 제1비서 참석下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
6/6,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인민군대가 건설하고 있는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정형 및 사리원市 '미곡협동농장' 현지요해
6/7, 중통·중방·평방	조선소년단 창립 67돌 경축 전국 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및 김기남(黨 비서) 및 소년단 제7차 대회 대표들 등 관람
6/8,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지도
6/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
6/9, 중통·중방	김영남,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현지요해
6/9,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함흥지구 중요 공장·기업소 현지요해
6/10,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국제체육학교와 능라인민체육공원 시찰
6/10, 중통·중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세포등판 개간 전투장 현지 요해
6/11, 중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6호(6.10),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에게 '대장' 군사칭호 수여
6/11,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함경남도 '덕성광산과 금야청년탄광' 현지 요해
6/1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기념관 건설 지원자들인 인민대학습당 연구사 '최성실' 등에게 감사 전달
6/13, 중방·평방	'김정은 호소문(6.4,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과업관철' 위한 세포등판(※강원도) 군인건설자·돌격대원들의 군민(※軍民)대회, 현지 진행
6/13, 중통	박봉주 내각 총리, 양각도축구경기장과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 요해
6/1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3 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창성식료공장·창성국수집·은덕원·창성혁명사적관 등) 현지지도
6/1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

6/16,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유평혁명사적지 현지도
6/16, 중방	최고인민회의 정령, 문경덕(黨 중앙위 비서 겸 평양시黨 책임비서) 참가하 평양기초식품공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
6/1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도
6/18,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인민대학습당 편집원 등에게 감사 전달
6/18, 중방·중통	김정일 黨사업 개시('64.6.19)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6.18 김영남·박봉주·김격식·장정남·김기남·최태복(보고)·양형섭·리용무·강석주·오극렬·김원홍·김양건·문경덕(사회) 등 참가하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6/1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오중흥7연대 칭호 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도
6/20,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안주시(平南)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도
6/21, 중통	'김정일은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영도자'라고 칭송하며 '영도자가 있었기에 군대와 인민은 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달려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
6/22,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도
6/2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현지도
6/23, 중통·중방·평방	박봉주(내각총리), 단천마그네사공장·단천제련소·단천항사업 및 상농광산(함경남도) 운영실태 현지 요해
6/2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자강도 노동계급들과 모란봉악단 공연(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체육관) 관람
6/2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장자강공작기계공장 현지도
6/24,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검덕지구 대흥청년영웅광산 등 여러 곳 생산정형과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현지요해
6/2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00살 장수자 오덕길(女, 황해북도 사리원시 신양동)에게 '생일상' 전달
6/25, 중통·중방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미림 승마구락부·문수물놀이장 건설정형 현지 요해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